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개발도상국 농촌 바로보기:
농촌지리학의 관점으로 본 캄보디아
트봉크뭉주의 종합적 공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김 권 호

2018년 8월

개발도상국 농촌 바로보기:

농촌지리학의 관점으로 본 캄보디아 트봉크뭉주의 종합적 공간




지도교수 권상철

김 권 호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8월

김권호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손 명 철 
위 원 권 상 철 
위 원 오 상 학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년 8월

Redefining the Rural in the Developing World
: A Study on the Totality of Space in
Tbong Khmum Province, Cambodia from the
Perspective of Rural Geography

Kwonho KIM

(Supervised by Prof. Sangcheol KW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8.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director, Myeongcheol SON Prof. of Geography Education
Sanghak OH Prof. of Geography Education
Sangcheol KWON Prof. of Geography Education

.....
Date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빈곤, 결핍, 무지, 무능, 순응 …….’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 농촌은 대중에게 부정적 상상(imagery)으로 각인된다. 특히 캄보디아의 경우 빈곤층의 약 9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어, 정부와 해외기관을 비롯한 여러 단체가 동정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하지만 농촌은 굶주리지도 구걸하지도 않았으며, 농촌을 직접 관찰한 사람들은 구조적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지역 전반에 깔린 활기와 동력에 놀라곤 한다. 이 차이는 관찰자에 영향을 미친 재현(representation)으로서 농촌과 실제 주민이 활동하는 사실(factual contents)로서의 농촌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분법적 공간인지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지역인 트봉크뭉(Tbong Khmum) 주(州)를 중심으로 캄보디아 농촌 공간의 다양한 입장과 측면을 아우르는 공간 해석을 시도했다. 이는 기능적 연계가 강조된 오늘날 농촌 해석의 한계에서 벗어나, 지역의 지리,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에 대한 분절된 논의를 묶어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구현이 가능하다. 이로써 트봉크뭉을 비롯한 다른 캄보디아 농촌이 농촌 자체로서 어떠한 특성과 가치 그리고 가능성을 함유하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표출해야 하는지 제시하려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할파크리(Halfacree, 1996)의 농촌 공간 삼중모델(three-fold model of rural space)을 기반으로 캄보디아 트봉크뭉을 구성하는 세 가지 축(농촌 표상, 농촌 로컬리티, 농촌주민의 삶)을 분석했다. 장기간의 참여관찰을 기반으로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 분석, 통계 분석, 설문조사 등의 출처가 다양한 정보를 지리적 안목과 논리로 조합했으며, 이를 통해 캄보디아 트봉크뭉 농촌의 사회, 역사, 경제, 정치, 환경 등 다양한 배경을 포용했다. 일반적으로 농촌만이 아닌 캄보디아 전반에 대한 외부의 상상은 부정적 개념과 연결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 농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오늘날,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개발도상국 정부와 국민에게 불가피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캄보디아 정부는 농촌의 취약성을 강조하며, 지역 전반의 제약을 극복할 의지를 표했으며, 해외 원조기관들 역시 이에 동조하며 자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공식적 표상은 캄보디아 농촌 전반에 걸친 열악한 자본주의적 생산기반에 의해

발생했으며, 이러한 열악한 농촌 로컬리티의 극복을 위해 농촌개발의 필요성이 재차 공식적으로 강조됐다. 이 속에 농촌 주민의 삶은 순응적이거나 수동적으로 간주하며 외부의 압력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존재로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농촌의 내면에는 단일한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 다양성, 분절성, 긴장 관계 등을 함유하기에 성급한 일반화를 지양해야 한다. 외부인의 단편적인 시선으로 트봉크뎀이 소수 민족(참족)의 기반이며, 민감한 정치적 긴장을 내재함을 알 수 없다. 또한, 농촌이 함유한 문화적 다양성과 암묵지(tacit knowledge)는 오랜 생존과 적응의 결과로서 부족한 자본주의 생산인프라를 보완했고, 나아가 이들의 전통적 가치를 보존했다. 그 과정에서 농촌은 시대변화에 수동적으로 휩쓸리기만 한 것이 아닌 나름의 전략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일반적 상상과 차이는 본질적으로 농촌 주민이 획일화되지 않은 비일관적 존재이기에 발생한다. 농촌 주민은 가치관, 역량, 인식, 배경, 직업 등에 따라 같은 상황에도 다르게 대응하며 다른 결과를 얻는다. 특히 현대사의 혼란은 주민의 삶의 분열을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외부인의 기대나 예상과 상이하게 행동하는 주민이 필연적으로 발생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캄보디아 주민이 오랜 기간 내재한 조심성의 문화는 이러한 긴장관계를 쉽사리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다.

캄보디아 트봉크뎀 삼중모델의 각 축은 표면적인 외부의 상상과 일치하는 공간과 내재된 불일치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할파크리가 주장했듯 각 축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닌, 상호관계를 통해 공간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킨다. 하지만 오늘날 농촌에 대한 접근은 농촌을 표면적이고 부분적이면서도 편향적으로 다루고 있어, 내면에 복잡하게 얽힌 상호관계와 역동성을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향후 농촌개발의 효과가 제한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농촌과 농업이 갈등 없이 활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소와 관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이에 대해 고려가 부족하다. 따라서 무시되어온 농촌의 진정 미래지향적 방향성 확립과 잠재력 발굴을 위해서 성급한 일반화를 지양해야 하며, 지역의 복잡한 내적 정보를 파악하는 데 있어 지리학의 역할이 막중하다.

주요어: 캄보디아 트봉크뎀, 농촌 공간 삼중모델, 농촌 표상, 농촌 로컬리티, 농촌 주민의 삶, 종합적 농촌 공간

<차 례>

I. 서론	1
1. 연구 목적	3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	3
3. 연구의 설계 및 방법	11
II. 캄보디아 트봉크뭉 농촌에 대한 공식적 표상	27
1. 캄보디아 농촌에 대한 공식적 표상	27
2. 트봉크뭉주에만 해당하는 공식적 표상	34
3. 소 결: 도움이 필요한 순응적 존재로서 캄보디아 트봉크뭉 농촌	36
III. 캄보디아 트봉크뭉 농촌의 로컬리티	37
1. 농촌의 열악한 자본주의 생산 기반	37
2. 다양성과 능동성의 주체로서 농촌	47
3. 소 결: 구조적 빈곤과 잠재적 가능성의 캄보디아 트봉크뭉 농촌	53
IV. 캄보디아 트봉크뭉 농촌 주민의 삶	55
1. 트봉크뭉 농촌 주민의 필연적 인식 차이	56
2. 농촌 주민의 사업 우선순위의 차이	62
3. 소결: 본연적으로 분열된 캄보디아 트봉크뭉 농촌	64
V. 결론: 캄보디아 트봉크뭉의 종합적 농촌 공간	66
1. 종합적 농촌 공간으로서 캄보디아 트봉크뭉 농촌	66
2. 이 연구의 한계와 제언	69

참고문헌	71
부록	78
1. AHP분석 설문지	78
2. 캄보디아 주요 국가지표	82
Abstract	85

〈표 차례〉

<표 1> 캄보디아의 주요 사회지표	16
<표 2> 캄보디아 농촌주민 1인당 소득의 비중(%)	18
<표 3> 사업 계층 구분 및 설명	25
<표 4> 사각전략 농업 부분 세부목표	29
<표 5> 캄보디아의 농촌개발 관련 중앙부처 및 주요 전략	31
<표 6> 가구별 재배작물(중복 응답)	38
<표 7> 농사 가능 토지 보유율	40
<표 8> 농기계 보유 상황(중복 응답)	42
<표 9> 2014년 화학비료 사용 여부	42
<표 10> 주민이 인식하는 농산물 마케팅 문제(중복 응답)	43
<표 11> 신제품 재배 교육을 받은 농가의 비율	44
<표 12> 이주 한/할 농가의 목적지	46
<표 13> 2014년 돈을 빌린 경력이 있는 농가	47
<표 14> 위하아삼보의 사업 선호도 및 우선순위	63
<표 15> 꼴의 사업 선호도 및 우선순위	64
<표 16> 캄보디아 트봉크뎀의 종합적 농촌 공간	66

〈그림 차례〉

〈그림 1〉 종합적 농촌 공간 분석을 위한 접근방법	7
〈그림 2〉 트봉크럼 농촌 공간의 종합적 이해를 위한 연구모형	12
〈그림 3〉 캄보디아 전국지도 및 연구지역의 위치	12
〈그림 4〉 수도 근교 3개 주와 프놈펜	18
〈그림 5〉 성장, 고용, 평등 그리고 효율성을 위한 사각형 전략(Phase III)	29
〈그림 6〉 캄보디아 농촌마을의 현재 상황(KOICA의 분석결과)	34
〈그림 7〉 2013년 총선 캄퐁참주 지지성향(크기-유권자 수, 채도-지지율) 36	
〈그림 8〉 마을진입로(건기)	43
〈그림 9〉 마을진입로(우기)	43
〈그림 10〉 참족 주민회의(위히아삼보 마을)	50
〈그림 11〉 크메르족 주민회의(꿀 마을)	50
〈그림 12〉 마을 내 이슬람사원(위히아삼보 마을)	50
〈그림 13〉 마을 내 불교사원(쭙오 마을)	50
〈그림 14〉 마을 중심 거리모습(참족, 삼보 마을)	51
〈그림 15〉 마을 청소 캠페인(크메르족, 리비아또 마을)	51
〈그림 16〉 마을이장 집 앞에 설치된 여당 표지판(트로페앙 프롤릿 마을)	58
〈그림 17〉 일반적 캄보디아 농가	59
〈그림 18〉 요리하는 캄보디아 여성	59
〈그림 19〉 캄보디아 농가 텃밭	59
〈그림 20〉 참족마을 일반적 한상 차림	59

I. 서론

개도국 농촌은 그다지 슬프지 않다. 20세기 이후 국제사회가 산업화와 세계화 일변도의 길을 걷기 시작하며, 농촌은 계륜(鷄肋) 취급을 받아왔다. 식량안보와 균형 발전 그리고 전통적 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농촌과 농업을 다시 활성화 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지만, 농업의 증진과 농촌의 개발을 위해 진행된 사업들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농촌은 대부분 국가들의 해결과제로 자리 잡았다. 이와 더불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계 인구의 48%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이중에 약 70%가 빈곤층이라는 상황으로 인해¹⁾,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 농촌에 대한 대중의 상상은 빈곤, 결핍, 열악, 무지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연결된다(김다원·한현수, 2012). 실제로 캄보디아 농촌 지역의 1인당 일평균 소득은 2013년 기준 1.51달러(USD)로 추정되며(CSES, 2014), 이는 세계은행(World Bank, 2015)이 지정한 절대빈곤선인 2011년 기준 1.9달러 보다 낮다. 심지어 캄보디아 전체 빈곤층의 약 90% 가량이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캄보디아 중앙 정부와 해외 원조기관을 비롯한 여러 단체가 농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그런데도 캄보디아 농촌은 생각만큼 슬프지 않다. 실제로 농촌을 방문하고, 또 직접 관찰한 사람들은 농촌의 구조적인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지역 전반에 깔린 활기와 동력에 놀라곤 한다. 이들은 굶주리지도 구걸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인식과 실제의 괴리는, 관찰자에 영향을 미친 ‘재현(representation)’으로서 농촌 지역과 실제 주민이 활동하는 ‘사실(factual contents)’로서의 농촌 지역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김다원·한현수, 2012). 이러한 상황은 한정된 정보만으로 만들어진 ‘상상(imagery)’으로 지역을 성급히 예단하는 장소 인식의 문제점과 이를 기반으로 농촌의 발전 방향을 그렸을 때 발생하는 지속가능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도 농촌의 개발은 필요하다. 농촌 주민들이 지금 당장 굶주리고 있든 그렇지 않든, 오늘날 농촌 사회는 세계화라는 거대한 구조 속의 일부로 포함되었으며, 자급자족적 생태계를 잃고 외부지역과의 기능적 연계로 존재의 가치가 인정

1) <http://data.worldbank.org/topic/agriculture-and-rural-development>의 자료 사용

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보전하던 개발도상국 농촌이 국제사회에 편입하기에는 아직 물질적, 비물질적으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ADB, 2012). 따라서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선 농촌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특히 빈곤퇴치에 있어서 농촌개발의 역할이 타 분야보다 지대함이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Christiaensen, 2007; World Bank, 2008).

하지만 이러한 희망적인 흐름 속에서도 농촌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잠재적인 긴장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 아닌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대부분의 농촌개발 사업은 농촌과 외부의 기능적 연계에 초점을 맞추어, 인프라 지원, 교육 활동, 소득창출 사업 등이 산발적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았다. 하나하나의 시도 자체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나, 그 배경에 농촌 자체의 의미, 그 지역이 가지는 본질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지역연구는 지역의 지리,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에 대한 분절된 논의들을 하나로 묶어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때 구현이 가능하다(최병두, 2014; 한주성, 2018).

오늘날 개발도상국 농촌에 관한 연구는 개발도상국 스스로가 아닌 선진국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 개발된 논리를 개발도상국에 적용해보거나 연구기관의 관심사에 맞춰 정해진 주제에 결과를 유도하는 시도가 주를 이뤘다. 이러한 접근에 기반을 둔 대다수의 연구가 개발도상국 농촌 지역의 빈곤퇴치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이후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는 답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농업이 개도국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개도국 농촌이 선진국 농촌의 궤도를 고스란히 밟아 점차 주변화될 것인지, 아니면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도가 있는지 등 논의할 내용이 산적해 있으나, 현재 개발도상국 농촌에 대한 부분적 혹은 편향된 인식은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장애가 된다.

본 연구를 포함해 외부인의 눈으로 살펴본 지역연구는 지역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하지만 산발적이고 제한적으로 제공된 지역 정보와 지리적 안목을 통해 관찰한 내용을 조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사례지역인 캄보디아 농촌이 보유한 특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농촌 공간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로써, 향후 캄보디아 농촌의 장기적인 비전 설정에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되려는 것이 본 연구의 최초이자 본질적인 목표이다.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지역지리(regional geography)’ 연구이다. 이에 따라 연구대상 지역인 트봉크뭉(Tbong Khmum) 주(州)를 중심으로 캄보디아의 농촌 공간을 다양한 측면에서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 분석을 진행하여 해당 농촌 지역의 총체적인 공간성을 규명하고, 나아가 발전적 미래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종합적’이라는 의미는 실재적 사실(factual contents)과 재현(representation)이라는 이분법적 공간 인지를 극복하고, 다양한 입장과 측면을 아우르는 공간적 해석을 의미한다. 나아가 ‘개발도상국과 농촌’, ‘캄보디아와 농촌’, ‘도시와 연계된 농촌’ 등의 기능적 연계가 강조된 오늘날의 농촌 해석의 한계에서 벗어나, 트봉크뭉을 비롯한 다른 캄보디아 농촌이 농촌 그 자체로서 어떠한 특성과 가치 그리고 가능성을 함유하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를 표출해야 하는지 제시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 중 하나인 캄보디아, 그 안에서 소외된 농촌, 그리고 다시 그 중에서도 주변화(marginalization)가 심한 트봉크뭉을 연구의 핵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무시되어온 지역’에 대한 연구에서 지리학의 역할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출처가 다양한 연구지역의 제한적 자료를 지리학적 논리와 상상력으로 조합하여, 여러 학문 분야를 포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공간해석을 시도했다. 이로써 본 연구가 개발도상국 농촌을 바로 이해하고, 그 수단으로서 지리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

1) 농촌 지역 분석을 위한 지리학의 노력

20세기 초중반 이후 지리학이 하나의 학문 분야로 발전함에 따라 연구의 방법과 범위를 넓혀 왔으나, 뒤따른 산업사회의 고도화 때문에 농촌(rural) 혹은 농촌성(rurality)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서서히 외면받아왔다. 농촌의 의미와 지역적 특성에 대한 지리학계의 초기 연구는 필연적으로 ‘지역지리학’이라는 포괄적인 접근과 연계되어 농촌 지역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산업화 일변의 시대 분위기 속에 농촌은 그 자체로 독립적 의미를 가지는 존재이기보다는 도시에 먹거리와 자원을 공급하는 원천으로 인식되었으며, 학계의 해석 역시 도시와의 기능적 관계에 집중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도시적인 것과 농촌적인 것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을 재생산한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농촌의 농업방식을 지도화한 튀넨(Thunen)의 ‘고립국 모델(1826년 작성하여 1966년 영역)’과 농촌과 도시 주거의 위계관계를 설명한 크리스탈러(Christaller)의 ‘중심지 이론(1933년 작성 1954년 Losch 수정)’ 등의 20세기 초중반 지리학계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들은 이러한 대중적 인식을 과학적 이론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했으나, 농촌의 일차적 역할에 집중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포착하는데 실패하고 농촌을 도시에 대한 ‘보조적인, 뒤떨어진, 낡은’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Woods, 2011²⁾). 1960년대 이후에는 지역지리학이 지역에 대한 기술(記述)에 과도하게 집중하여 과학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음에 따라 양적 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둔 ‘실증주의 지리학’이 유행하게 되었다. 그 영향으로 지역 연구의 목적이 공간 조직의 패턴과 법칙 발견으로 전환되었으며, 자연히 주된 연구대상이 도시로 집중되었다(Hubbard, 2006).

1970년대 이후 농촌에 대한 지리학 연구의 흐름은 인문지리학(혹은 사회과학 분야 전체)의 개념적 발전과 궤를 같이했다. 1960년대 이후 유행한 실증주의적 접근은 경험적 탐구를 통해 객관적 사실을 발굴하는 데 목적을 뒀다. 하지만 통

2) 박경철 외 역 (2016)

계적 분석을 통해 검증된 결과가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으며, 연구 대상의 성격을 일반화함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무시되는 대상을 만들어내는 방법론적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Cloke, 2006). 이후 1970년대와 1980년대 네오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한 정치경제학적 접근법이 발전함에 따라, 자본주의의 작동원리로 인해 농촌과 농업이 자본 축적을 위해 산업적으로 구조화되는 것을 강조하는 농업분석이 활발히 진행됐으며, 이에 따라 전통적인 농촌 생활양식은 연구대상에서 배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치경제학적 연구가 각각의 농촌이 구획된 공간을 넘어 지역·국가·세계와의 연결고리를 통해 작동함을 증명한 것은 분명한 성과이나(Cloke, 1989), 이 접근방법이 강조하는 도시와 농촌(혹은 외부와 농촌) 간의 기능적 연계로 인해 오히려 농촌이라는 용어가 보유한 설명력이 약화되었다. 예를 들면 ‘어디까지가 농촌인가?’, ‘무엇이 농촌적인 것인가?’, ‘도시와 농촌은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가?’와 같은 의문에 누구도 쉽사리 답을 내릴 수 없게 되었으며, 거대한 구조 속에 포함된 각각의 농촌이 보유한 고유 성격이 무시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Hoggart, 1990; Woods, 2009; 2011)

그런데도, ‘농촌’은 늘 매우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강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어 이후, 세계 농촌사회에는 사회, 경제, 문화, 환경적 차이로 발생하는 예외적인 변수들이 등장하여 하나의 특성으로 범주화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나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농촌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이 농촌주민을 ‘평균적인 남자(Mr. Average: 종교, 경제, 성격, 정치적으로 평범하거나 무의미한 특징을 보이며, 심지어 백인인 경우)’로 가정한 경우가 많아, 농촌의 개발이 직접적인 국가의 발전과 빈곤의 탈출로 연결되는 개발도상국의 농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20세기 후반 본격적으로 도입된 포스트모더니즘 지리학은 객관적인 진리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농촌지리학 분야에서 그동안 ‘무시되어온 농촌지리학’을 탐구할 것을 촉구했다(Philo, 1992; Woods, 2011). 이들에 따르면 농촌 혹은 농촌성은 구체적인 대상 혹은 상태에만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며, 사회적으로 구성된 ‘사교의 범주’이다(Mormont, 1990). 오늘날 농촌에는 주민 각자의 삶과 경험, 외부인의 상상, 농촌의 지역으로서 역할 등 다양한 요소가 서로 호응하거나 길항하며 하나의 개념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농촌이라는 용어

가 특정 지리적 공간에서 벗어나 하나의 사회적 개념으로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Halfacree, 1993; Woods, 2011). 이러한 흐름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힌 각각의 농촌을 해석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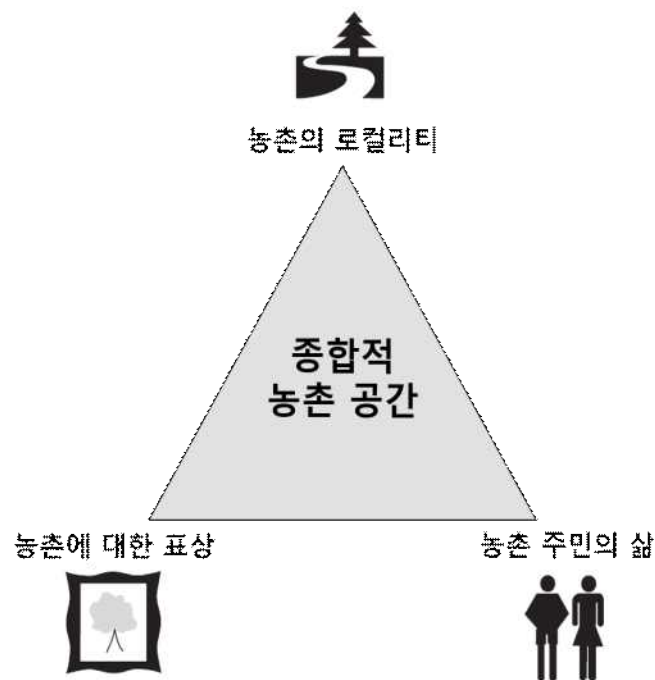
특히 지역의 종합적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역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통합하고, 해당 지역의 사회와 문화를 전체적으로 깊이 이해하려는 학제적 시도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Massey(2005)는 지역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로 구성되는 관계의 산물로 인식하고, 지역적 범주와 관련된 경계, 관찰영역, 스케일 등에 대해 재해석할 것을 요구했다(한주성, 2018). 이는 곧 모든 농촌은 지역 내외부에서 발생한 다양한 압력 간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며, 이로써 만들어진 지역의 특성(경제, 문화, 역사 등), 압력 간의 긴장관계, 그리고 그 속에 실제 주민의 삶을 지역적 경계에 얽매이지 말고 맥락적으로 이해해야 함을 의미한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그리고 한국의 모든 농촌이 저마다의 환경에 따라 고유한 특성을 키웠으나, 그 내면에는 다양한 요인과 압력이 복잡하게 작용하여 현재의 지역성을 만들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의 농촌에 대한 접근은 농촌을 표면적이고 부분적이면서도 편향적으로 다루고 있어, 농촌이 처한 현황을 심도 있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각적으로 농촌을 바라 본 영국의 인문지리학자 할파크리(Halfacree, 1996)의 ‘농촌 공간의 삼중모델(three-fold model of rural space)’을 통해 ‘무시되어 온’ 캄보디아 트봉크뎀 지역을 다양한 측면에서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 분석을 진행하여 해당 농촌 지역의 총체적인 공간성을 규명하고, 나아가 발전적 미래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농촌 공간의 삼중모델

할파크리가 제시한 농촌 공간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은 프랑스의 문화연구가 르페브르(Lefebvre, 1974; 1991 英譯)가 그의 저서 『공간의 생산(*The Production of Space*)³⁾』에서 제시한 공간이론인 삼항변증법(trialectics)에 기반을 둔다. 르페브르는 공간 내에 자본주의 원리로 발생하는 다양한 압력에 의해

3) 양영란 역(2011)

공간이 지속해서 (재)생산된다고 보았다. 그는 이를 정리하여 공간은 ‘공간적 실천(정)’, ‘공간의 재현(반)’ 그리고 그 속에서 비일관적으로 발생하는 ‘재현의 공간’을 통해 ‘총체적 사회공간(합)’으로 발전한다고 설명했다(최병두, 2018). 이에 할파크리는 도시 공간을 설명하는 데 집중한 르페브르의 논리를 농촌에 적용하여, 농촌의 다양성, 이중성을 포함한 농촌의 맥락 전체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 모델인 농촌 공간의 삼중모델을 제시했다(<그림 1> 참조). 그는 나아가 이 모델은 모든 농촌에 적용 가능하며, 다양한 유형의 농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Halfacree, 1996; Woods, 2011).



<그림 1> 종합적 농촌 공간 분석을 위한 접근방법

출처: Halfacree(1996)를 일부 수정

(1) 농촌에 대한 공식적 표상

르페브르(1991)에 따르면 공간의 재현(representation of space)은 자본가, 개발업자, 과학자, 정책결정자 등 권력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에 대한 공식적인 인식이다. 그에 따르면 공간에 대한 표상은 추상적이지만 의도적으로 계획될 수

있으며, 다양한 방식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된다. 이렇게 전달된 표상은 은연중에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정책실행에 힘을 보태기도 한다. 할파크리(1996)는 이 개념을 농촌에 적용하여 ‘농촌에 대한 공식적 표상(formal representations of the rural)’으로 변환했다. 그는 농촌에 대한 공식적 표상이란 자본가, 고위 관리자, 정치인들에 의해 표출되며, 특히 농촌을 어떠한 방식으로 [자본주의적] 생산과정 속에 규정할 것인가와 관련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농촌의 어떤 부분을 상품화하여 거래할 것인가’가 농촌의 주된 고민거리이다. 오늘날 선진국을 포함해 대다수 국가에서 농촌과 농업은 자국의 식량안보와 균형발전을 위해 보전의 필요성이 크나, 효율성이 매우 낮은 지역과 산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크다. 그 때문에 농촌의 자생력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발전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농촌에 대한 공간적 표상의 영향력이 범세계적으로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자국 내 빈곤층의 비율이 농촌 지역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나 농촌 지역 개발의 필요성이 매우 크나, 국가적 역량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농촌개발을 위한 해외 원조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농촌의 공간적 표상은 단순히 자국의 권력층만이 아닌 해외기관 혹은 영향력이 큰 외국인들의 힘이 작용하여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2) 농촌의 로컬리티

르페브르가 제시한 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s)은 특정 사회(혹은 공동체)가 속한 공간의 물질적 영속성과 사회적 재생산 관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활동(거래, 상호교류, 물류운반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습적 실천은 공간 내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그밖에 상호 간 유사성의 표현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할파크리는 ‘농촌의 로컬리티(rural locality)’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다른 지역에 비교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적인 관습(혹은 실천)이나 특성을 의미한다. 그는 오늘날에 농촌 로컬리티가 농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이나 소비 활동과 주로 연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농업 활동은 식량 생산을 산업화하고 토지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농부들이 일상적으로나 계절마다 하는 반복적인 농업 활동만이 아니

라 이를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측면의 보조 활동까지 농촌 로컬리티에 포함할 수 있다. 지역 내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농사 이외의 관습들 역시 농촌·농업적인 분위기를 함유하며 농촌 로컬리티의 일부가 된다. 예를 들어 마을의 지역축제, 시장(market)의 역할, 마을 지도자의 활동, 마을조직 등이 포함된다(Halfacree, 1996). 농촌의 로컬리티는 농촌을 지속하고 농촌이 지닌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자본주의적 가치의 강조로 농촌 내부에 잠재된 고유한 가치들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아, 농촌의 표면에 드러난 것만이 아닌 내부에 잠재된 로컬리티까지 발굴이 시급하다.

(3) 농촌 주민의 삶

마지막으로 르페브르가 말한 재현의 공간(spaces of representation)이란 실제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복잡한 감정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다양하고 때에 따라 일관성 없는 상상이나 상징을 의미한다. 이는 지역 내에서 이용자(user)의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이들의 비(非) 일관적으로 발생한 심적인 변화나 행동이 때에 따라 지역에 대한 일관된 인상이나 관습을 전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절대 낮지 않다. 할파크리는 이를 ‘농촌 주민의 삶(lives of the rural)’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그에 따르면 주민의 삶은 본연적(intrinsically)으로 분절되고 일관적이지 못할 수밖에 없다. 주민은 스스로가 지닌 개인적 요인이나 사회적(혹은 문화적) 요인의 영향 속에, 각자의 해석과 절충을 통해 행동한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 공식적 표상이나 로컬리티의 힘이 강력할 경우 주민의 삶을 압도하여 주민의 행동이 유도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농촌적 가치가 약화된 오늘날, 특히 빈곤 극복이 가장 급선무로 표현되는 개발도상국의 농촌의 경우 농촌 주민이 외부의 영향력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능력 및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일반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분명 객관적 상황에 크게 벗어난 해석은 아니다. 하지만 앞서 할파크리가 주민의 삶은 본연적으로 일관적이지 못하다 말한 점에 알 수 있듯이, 일반화된 농촌 주민들 내부에도 같은 상황에 대해 예외적인 반응과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상당수의 개발도상국이 정치적인 불안으로 이미 심각한 수준의 갈등을 겪었거나, 갈등이 잠재된 경우가 많다. 선불리 개발도

상국 농촌 주민을 일반화하여 접근할 경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들 농촌 주민의 삶의 중요성이 결코 낮지 않다.

(4) 종합적 농촌 공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할파크리는 모든 농촌 공간은 농촌 공간 삼중모델을 통해 종합적으로 해석 및 분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삼중모델을 구성하는 각 축은 언제나 다른 두 축과의 연계를 통해 작동하지만(Shields, 1999), 이것이 곧 분석의 결과가 반드시 조화롭고 통일된 농촌 공간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농촌에는 각 측면을 영속화 시키려는 힘과 변화시키려는 힘 사이에 긴장이 존재하여, 특정 한 축의 영향력이 지배적이거나 별다른 영향력이 없을 수 있으며, 다른 축의 영향을 강화, 대립하거나 중립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각 축의 내부 논리 사이에도 일치와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르페브르는 공간이란 본질적으로 역동적인 대상으로 인지했다.

삼중모델에 기반을 둔 다각적 접근은 공간 분석에 발생하는 실제적 사실과 재현이라는 이원론적 갈등에서 벗어나 공간 그 자체에 대한 총체적 해석을 시도할 수 있다. 특히 이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각 측면 간 일관성의 정도는 해당 농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농촌 공동 활동의 효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할파크리는 지역의 일관성 정도를 그 정도에 따라 모든 측면이 조화롭고 일관성 있게 작용하는 ‘일치와 통합(congruent and unified)의 수준’, 잠재적인 갈등과 긴장이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 ‘모순과 분열(contradictory and disjointed)’의 수준, 그리고 근본적인 모순으로 지역의 구성요소 간 일관성을 완전히 상실한 ‘혼란과 비일관성(chaotic and incoherent)’의 수준으로 구분했다(Halfacree, 1996). 제시된 세 가지 단계가 절대적인 기준치가 될 수는 없으나, 필연적으로 오늘날의 모든 농촌은 각기 다른 내부 상황에 따라 다른 일관성의 정도를 보이며, 나아가 각 농촌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때문에 본 연구는 트봉크뭉주를 중심으로 캄보디아 농촌을 구성하는 각 축의 의미와 영향을 구현하여 해당 농촌들의 공간성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농촌 공간에 작용하는 힘들 간의 일관성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캄보디아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발전 방향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3. 연구의 설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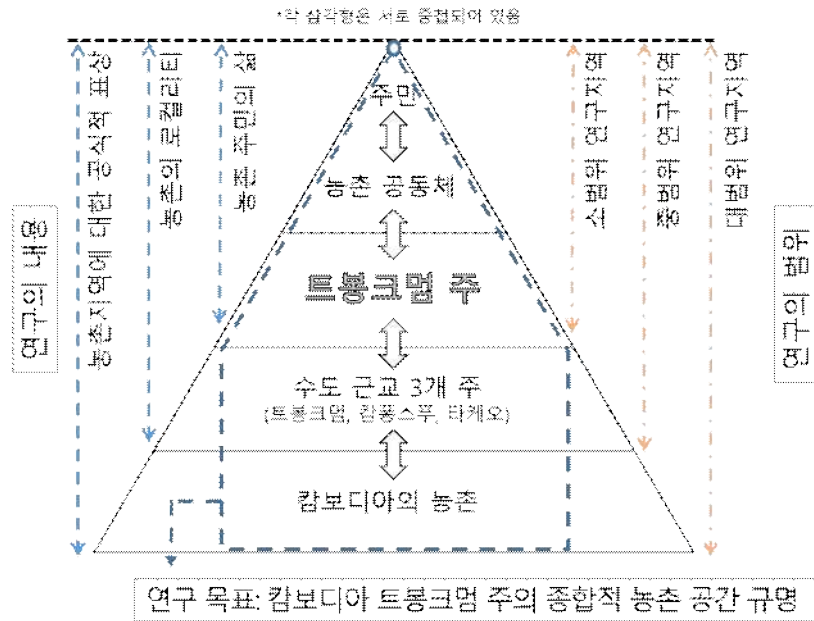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종합적 농촌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은 앞 장에서 설명한 할파크리의 농촌 공간의 삼중모델에 기반을 둔다. 이로써, 트봉크뭉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의 범위를 좁혀가며(캄보디아 농촌 - 수도 근교 3개 주 농촌 - 트봉크뭉주 - 농촌공동체 - 농촌 주민), 캄보디아 농촌이 지닌 농촌 지역에 대한 공식적 표상, 농촌의 로컬리티, 농촌 주민의 삶이라는 세 가지 축을 분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캄보디아 트봉크뭉주의 종합적 농촌 공간을 규명하고자 한다(<그림 2 참고>).

이를 위한 연구의 범위 및 내용으로써, 우선 캄보디아 농촌 전역을 대(大) 범위 연구지역으로 설정하여, 농촌 지역을 덮고 있는 공식적 표상을 분석한다. 이로써 캄보디아 농촌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핵심 연구대상인 트봉크뭉과 비교군인 캄퐁스프주와 타케오주를 포함해 캄보디아 수도 근교에 위치한 3개 주를 중(中) 범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여 농촌의 로컬리티를 분석한다. 나아가 트봉크뭉과 다른 2개 주를 비교분석 함으로써 트봉크뭉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농촌 로컬리티를 발굴하려 한다. 세 번째로 핵심 연구대상인 트봉크뭉을 소(小) 범위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여 주 내부에 있는 농촌 공동체(혹은 마을)와 주민의 삶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조사된 세 측면의 결과를 분석하여 트봉크뭉주의 종합적 농촌 공간을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절차이다.

본 연구의 내용과 범위를 설명한 바와 같이 중첩적이고 단계적으로 구성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 지역은 언제나 유동적이고 계층적인 개념으로 다른 지역 혹은 상위 지역과의 상호작용이 지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트봉크뭉을 중심으로 연구 지역을 단계적으로 구성함으로써, 농촌 지역이 지니는 공간적 특성과 상호관계를 더욱 명확히 규명하려 했다. 두 번째는 현실적인 이유로, 뒤에서 설명할 트봉크뭉은 2014년 초에 신설된 주(州)이기 때문에 주 전반에 있어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무엇보다 해당 지역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와 연구가 매우 미흡하다. 현재 캄보디아는 여러 제약으로 인해, 세부 지역 및 주제 단위로 조사가 활성화되지 않아 타 농촌 지역

역시 비슷한 실정이나, 트봉크뭉의 경우 2014년 이전 정보는 추정자료조차 매우 희박하다. 이러한 이유로 트봉크뭉 지역이 포함된 상위 지역의 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유사점을 포섭하고 차이점을 배제하며 트봉크뭉이 갖는 농촌적 특성을 추려내려 한다.



<그림 2> 트봉크뭉 농촌 공간의 종합적 이해를 위한 연구모형



<그림 3> 캄보디아 지도 및 연구지역의 위치

2) 연구의 대상지역 소개

(1) 대 범위 연구지역: 캄보디아와 농촌

① 자연 및 인문 환경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반도의 북위 10° ~ 15° , 경도 102° ~ 108° 사이에 위치하며, 약 181,035km²의 면적을 차지한다. 북으로 라오스와 태국, 동으로 베트남과 접하고 있는 영토에는 약 1,54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약 80%가 농촌 지역에 거주한다(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 2016). 열대몬순기후로 설명되는 캄보디아의 계절은 잦은 가뭄이 발생하는 6개월간의 건기와 폭우를 동반하는 6개월의 우기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캄보디아의 지형은 동, 남, 북쪽이 험준한 산지로 둘러싸인 볼(bowl)의 형태와 유사하다(서쪽은 태국만과 접하고 있음). 내륙에는 캄보디아의 젓줄인 메콩(Mekong)강과 톤레사프(Tonle Sap)강이 가로지르며, 톤레사프강 중류에 자리 잡은 톤레사프호수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면적(약 2,700km²)을 자랑한다. 그 때문에 메콩강과 톤레사프호수 일대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비옥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연히 높은 인구밀도를 보인다.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이라는 공식 국명에서 알 수 있듯이, 캄보디아의 정치체제는 입헌군주제이며, 국토는 수도 프놈펜(Phnom Penh)과 25개의 주(州, province)로 구분된다. 수도 프놈펜을 포함한 도시지역에는 전체 인구의 약 20%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오늘날 급격한 산업화 덕분에 생활환경과 사회여건이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으나, 인구의 대다수인 80%가 거주하고 있는 농촌 지역은 여전히 정체되어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Tully, 2006).

캄보디아 인구의 절대다수인 약 90%가 ‘크메르족(Khme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트남계(4%), 중국계(1%)가 뒤따르고 ‘참족(Cham)’을 포함한 약 30여 개의 소수 민족이 4%가량의 인구를 차지한다(KOICA, 2015b). 하지만, 이들에 대한 인구통계와 민족적 분류기준이 매우 불분명하여 분류방법에 따라 크메르족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 참족이 전체 인구의 2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다양한 민족이 오랜 교류를 통해 절대다수인 크메르족의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며, 외관상으로 민족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교해 참족은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특성과 참족어라는 언어적 특성을 통해 분명히 구분되며, 그 밖에 소수민족도 저마다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전체 인구의 97%가량이 크메르족의 종교문화에 따라 상좌부불교(소승불교)를 신봉하며, 약 2%가량이 이슬람교를 따르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외에 소수민족의 경우 부족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민간신앙을 보전하고 있다(CRN, 2007).

② 역사적 배경의 영향

캄보디아의 역사는 13~15세기 인도차이나반도를 호령한 앙코르(Angkor) 제국의 영광과 일명 킬링필드(Killing Field)라는 별칭으로 현대사 최대의 비극으로 칭하는 폴 포트(Pol Pot, 1928~1998) 정권의 크메르루주(Khmer Rouge) 시기로 대표된다. 15세기 후반 앙코르 제국의 쇠퇴와 주변국인 베트남과 태국의 지속적인 침공으로 국력이 약해진 캄보디아는 19세기 중반 이후 약 100년간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고 1953년 독립하게 된다. 하지만 이후 설립된 왕정은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고 론 놀(Lon Nol, 1913~1985) 장군을 중심으로 한 친미 성향의 군부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군부세력 역시 부정부패와 국정 능력 부족으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켜 국민의 불만을 증폭시켰다. 결정적으로 당시 인접국인 베트남에서 발발한 베트남전쟁(1960~1975)이 기폭제 역할을 하여, 폴 포트를 중심으로 한 마오이즘(Maoism) 세력인 크메르루주의 쿠데타로 이어졌다(정미경, 2014). 1975년 수도 프놈펜을 점령한 크메르루주는 완전한 공산주의 농업사회의 재건을 천명하며, 도시지역을 소거하고 지식인, 자본가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진행했다. 종교, 사유재산, 현대적 문명의 산물들이 철저히 부정되었고, 농촌 지역 주민들 역시 협동농장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이후 1978년 베트남군에 의해 폴 포트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700~800만 명 수준의 당시 전체인구 중 약 200만 명의 캄보디아인이 내전, 기근, 고문, 그리고 미군의 폭격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⁴⁾. 폴 포트 정권의 붕괴이후 베트남의 관리

4) 신뢰할 만한 당시의 통계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피해 규모에 대한 추정치는 조사기관에 따라 상이하다. 예일대학(Yale University) 조사단의 집단 매장지에 대한 GIS 분석 결과 1,386,734명의 희생자를 추정했으며, 당시의 기근, 질병 등으로 죽은 사람까지 합치면 전체 희생자는 170만~250만 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그 밖의 연구에서도 피해자 추정치는 분석

를 받던 캄보디아는 1991년 파리평화조약의 체결의 따라 1993년 유엔의 관리하에 총선이 치러지면서 현재의 캄보디아 왕국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으나, 크메르루주 잔당의 게릴라 활동은 1999년까지 이어졌다. 현재 캄보디아는 1993년부터 집권한 훈 센(Hun Sen) 정권에 의해 안정되었다고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는다⁵⁾. 이렇듯 캄보디아의 현대사는 약 40년의 동안 6번이나 국가 체제가 바뀐 혼란의 시기로 해석될 수 있으며, 특히 막대한 인적·사회적·경제적 자본의 파괴를 야기한 크메르루주의 유산은 현재까지 캄보디아의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Colleta & Cullen, 2000). 캄보디아의 혼란스러운 현대사와 정치체계가 오늘날 미치는 영향은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③ 캄보디아의 정세 및 농업 부분 현황

캄보디아의 경제 상황은 1993년 첫 번째 총선이 치러진 이후 2008~2009년 사이 국제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7.2%로 추정되며, 물가상승률은 평균적으로 4~5% 사이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그 결과 캄보디아 기획부(Ministry of Planning, 2013)와 세계은행(World Bank)은 UN이 제시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8대 목표 중 하나인 '절대빈곤 및 기아 근절(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로서 빈곤선 이하 인구비율(poverty rate) 50% 감소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2007년 기준으로 47.8%의 빈곤선 이하 인구비율은 2014년 13.5%로 급감했으며, 2005년 1,660달러였던 1인당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은 2015년 3,290달러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신뢰도가 높은 연구로 평가되는 마이클 버커레이(Michael Vickery: 약 100~200만 명), 벤 키어넌(Ben Kiernan: 약 170만 명), 패트릭 휴빌라인(Patrick Heuveline: 약 250만 명) 등의 연구에서 각기 다른 접근방법으로 약 200만 명 내외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공통으로 추산했으나, 각 사망 원인에 따른 희생자의 추정치는 다소 차이가 있다(Sharp, 2006). 근래에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전체 희생자 중 크메르루주의 직접적인 고문과 학살에 의한 사망자는 10만~30만 명 정도이며, 일명 제1기 킬링필드(1969~1973, 크메르루주 집권 이전 시기)라 칭해지는 기간에 미군의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가 40만~80만 명 사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한겨레21 기사, 2002). 사망자 규모를 이보다 높게 추정할 사례로, UN 조사단의 경우 200~300만 명, UNICEF의 경우 300만 명으로 보고했다.

5) 1993년 훈 센 정권의 수립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장기집권과 향후 권력승계 의지에 따라 최근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The Economist, 2018.5.22. 기사).

러까지 상당히 증가했다⁶⁾. 하지만 소득을 비롯해 교육수준과 평균수명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의 개선 정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2015년 기준 188개국 중 143위). 초등학교 대비 중등학교 등록률이 25~30%의 낮은 수준을 보여,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등록자 중 절반 미만이 중등교육을 수료하는 상황이다. 특히 중등 교육 및 고용에 있어서 남녀 간 격차가 매우 크며(2014년 기준 성평등지수 0.418로 188개국 중 143위), 인프라 경쟁력 순위 역시 106위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 2016).

<표 1> 캄보디아의 연도별 주요 사회지표

항목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간개발지수	0.419	0.536	0.536	0.541	0.546	0.550	0.555	0.555
1인당 GNI(달러)	300	460	750	810	880	960	1,020	1,070
초등학교 등록률	106.5	130.4	123.4	121.7	121.4	123.0	116.4	-
초등학교 수료율	-	86.6	84.9	87.2	92.9	93.9	96.3	-
중학교 등록률	17	-	-	-	-	-	-	-
모성사망률(10만 명 당)	437	472	206	-	-	-	170	-
영유아 사망률(5세미만, 1000명 당)	108.3	65.4	43.1	39.3	35.8	32.9	30.6	28.7
안전한 식수 접근가능인구 비율	41.6	52.9	64.2	66.5	68.8	71.1	73.4	75.5
향상된 위생시설 접근가능 비율	16.3	24.9	33.6	35.4	37.2	39.0	40.8	42.4

출처: World Development Indicator, Human Development Index;
 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 인용(2016)

캄보디아의 환경은 1년에 최대 3회까지 경작이 가능할 정도로 농업에 유리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농가가 자급자족 형태의 소규모 농작을 하고 있어 농업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캄보디아 농업 분야는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4%대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낮은 수준의 투입량과 강우에 의존하는 농작 방식으로 인해 농업생산량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NSDP, 2014). 최근 국가 수준의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인해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투입자본의 증가와 함께 생산성이 향상하고 있지만, 전

6) World Bank, Cambodia Overview, <http://www.worldbank.org/en/country/cambodia/overview> (2018.1.13)

체 GDP 중 농업 부분이 차지하는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 기준으로 33.5%를 기록했다. 이는 농촌 지역에 전체 인구의 79.7%가 거주하고, 농업이 전체 일자리의 51%를 수용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보았을 때 충분치 못한 수치이다(KOICA 농촌개발 마스터 플랜, 2015b).

캄보디아에는 주요 작물인 쌀 이 외에도, 하천 유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밭작물(사탕수수, 옥수수, 콩 등)을 부분적으로 경작한다. 현무암성 적색토양(basaltic red soil)이 광범위하게 분포한 북동부 고지대에는 고무 플랜테이션 농업의 비중이 높으며 최근에는 카사바를 중심으로 환금성 높은 작물의 재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성이 높은 자본 집약적 농업은 프놈펜, 바탐방(Battambang), 씨엠립(Siem Reap)과 같은 대도시 인근에만 한정되어 있다. 그 때문에 여전히 대부분의 농가가 천수답(天水畝) 벼농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관개 시설의 부족이라는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KOICA, 2015b;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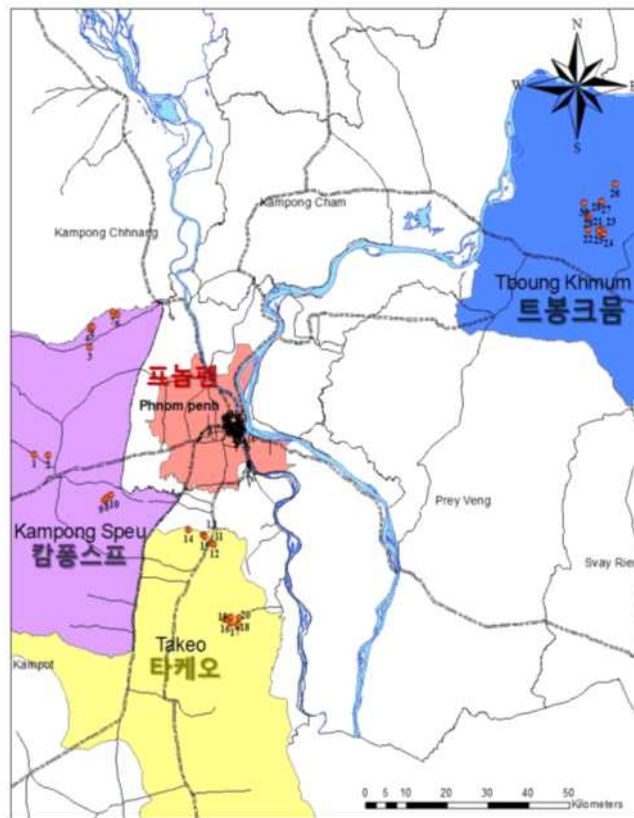
이는 국가 경제성장의 수단이 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를 기반으로 하며, 이로 인한 혜택 역시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인구의 다수가 사는 농촌 지역에 혜택이 불균등하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캄보디아개발연구원(Cambodia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CDRI)에 따르면 수도 프놈펜 지역에 1인당 소득은 농촌 지역보다 약 1.5배가량 높다(Tong et al, 2013). CDRI는 2004년 캄보디아 농가가 소득의 약 34%를 농업에서 획득한 것으로 추산했다. <표 2>를 보면 이 규모는 2011년까지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는 기타 농업소득(가축 사육, 어업, 임업 및 수렵)의 비율이 줄고 농작(cropping)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하지만 2012년을 기준으로 농업 소득이 2011년 33%에서 21%로 급감하였으며, 이에 비교해 농외 임금소득이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농업 임금소득은 2004년 21%에서 2012년 37%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캄보디아 농가의 소득이 점차 임금소득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Tong et al, 2013)⁷⁾.

7) 캄보디아 농촌의 1일 임금은 경운(밭 갈기) 20,000리엘, 이앙(옮겨심기) 12,000~15,000리엘, 건설 노동 20,000~25,000리엘(약 5~6.25달러) 수준이다(KOICA, 2015a).

<표 2> 캄보디아 연도별 농촌주민 1인당 소득의 비중(%)

항목	2004	2007	2010	2011	2012	
농업 임금	21	24	25	28	37	
농외 임금	21	21	24	21	21	
농업 소득	농작	11	18	17	20	13
	가축	11	7	6	6	3
	어업	5	4	3	2	2
	임업·수렵	7	6	5	5	3
	소계	34	35	31	33	21
기타소득	24	20	20	18	21	
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Tong et al, 2013



<그림 4> 수도 근교 3개 주와 프놈펜

* 붉은 점은 KOICA의 캄보디아 농촌공동체개발사업의 시범마을이자 본 연구의 주요 관찰지역임

(2) 하위 연구지역: 수도 근교 3개 주(중 범위)와 트봉크뭉(소 범위)

앞서 연구모델을 통해 제시했듯이 본 연구는 핵심 연구지역인 트봉크뭉주가 타 지역과 비교해 고유한 농촌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비교군인 캄퐁스프주와 타케오주를 포함해 3개 주를 중 범위 연구지역으로 선정했다. 캄보디아 내 인구 밀집지역인 수도 근교에 위치한 3개 주는 수도인 프놈펜을 중심으로 각각 북동쪽(트봉크뭉), 남서쪽(캄퐁스프), 남쪽(타케오)에 있다(<그림 4> 참고).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3개 지역은 소득 차이는 그리 크지 않으나, 문화·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이질적인 차이를 보여, 농촌 간 비교분석에 매우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① 트봉크뭉주

트봉크뭉(Tbong Khmum) 주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구밀도와 면적을 보유하던 캄퐁참(Kampong Cham)주에 속해 있었으나, 2013년 12월 31일 노로돔 시하모니(Norodom Sihamoni) 국왕의 왕령에 따라 2014년 초에 당시 캄퐁참주를 가로지르는 메콩강을 기준으로 동쪽지역이 공식적으로 분리되었다. 트봉크뭉에는 주도(capital)인 수옹(Suong)과 6개의 district(*kaet*), 64개의 commune(*ko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도 프놈펜에서 북동쪽으로 약 138km(차량으로 3~4시간 거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다. 4,928km²의 전체 면적에는 약 754,000명의 인구가 거주하며, 인구밀도는 1km²당 약 150명의 수치를 보인다. 북부의 산악지대에는 풍부한 화산토양으로 인해 고무 플랜테이션과 열대림, 목초지가 발달하며, 저지대로 이루어진 남부는 주로 농경지로 활용된다. 이 지역의 빈곤선 이하 인구비율은 2004년 35.5%에서 2012년 20.7%로 완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생 주로서 지역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하며, 따라서 대부분의 시기상의 변화가 캄퐁참주에 속해있던 시기로부터 추정치에 기반을 둔다(KOICA, 2015b).

트봉크뭉이 보유한 가장 분명한 특징은 전국에서 참(Cham)족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이며, 특히 농촌 지역에는 지역 주민이 크메르족과 참족비율이 50대 50이라 느낄 정도로 참족 비율이 높지만, 지역별 참족 인구분포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다. 이슬람교로 대표되는 참족은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약 2~4%

를 차지하는 소수 민족이지만 상좌부불교를 따르는 크메르족과 가장 분명히 대비되는 문화적 특징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크메르족과 참족의 인구 비율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는 트봉크롬 농촌을 핵심 연구지역으로 선정함으로써 캄보디아 농촌이 보유하는 다양성을 더욱 분명히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② 비교 연구지역

수도 프놈펜에서 남서쪽으로 약 72km(차량으로 약 1~2시간 거리)에 위치한 캄퐁스프(Kampong Speu)주는 전체 면적 7,017km²에 약 755,465명(2013년 기준)을 수용한다. 오늘날 캄퐁스프주의 인구는 연평균 1.1%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구밀도는 1km²당 108명 정도의 수치를 보인다. 8개의 district와 86개의 commune으로 구성된 캄퐁스프주는 북부의 험준한 산악지대와 남부의 저지대로 구분된다. 남부의 저지대는 다른 지역과 유사하게 논농사의 비율이 매우 높으나, 수도 프놈펜과 외항인 시하누크빌(Shihanoukville) 사이에 위치한 입지로 인해 많은 공장이 들어서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북부에는 자연환경과 문화적 특성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점차 발달하고 있으며, 남부에는 쌀, 옥수수, 사탕수수 등을 기반으로 한 농산업과 캄보디아 제조업의 근간인 봉제 산업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그 때문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젊은 노동력의 유입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결과로 2004년의 41.4%의 빈곤선 이하 인구비율이 2012년 기준으로 27.7%까지 하락했다(KOICA, 2015b).

반면, 수도 프놈펜에서 남쪽으로 약 77km(차량으로 약 1~2시간 거리)에 위치한 타케오(Takeo) 주의 면적은 3,356km²로 캄보디아에서 가장 작은 크기를 차지한다. 작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인구 규모는 높은 수치를 보이는데, 2013년 기준으로 923,273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1.78%를 기록했다. 이처럼 타케오주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보이는 주 중의 하나로 평균적으로 1km²당 259명이 거주하고 있다. 10개의 district와 100개의 commune으로 구성된 영역의 대부분인 약 3,000km²가 농지로 활용되고 있다. 메콩강 하류 유역에 포함되는 타케오주는 저지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주기적인 범람과 풍부한 강수로 비옥한 농토가 조성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캄보디아의 밥그릇(rice bowl of Cambodia)’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다수의 농가

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농사와 가축(소, 물소, 돼지, 닭, 오리 등) 사육을 병행한다. 빈곤선 이하 인구비율은 2004년 31.6% 수준에서 지속해서 감소하여 2012년 19.9%의 수준을 보이며, 이는 선정된 연구 지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KOICA, 2015b).

3) 연구의 자료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자는 3명의 조사원과 함께 KOICA 소속 ‘글로벌새마을청년전문봉사단’으로 2016년 3월부터 약 1년간 캄보디아 농촌에서 ‘캄보디아 농촌공동체 개발사업⁸⁾’에 참여했다. 모든 조사원은 각각 트봉크뭉, 캄퐁스프, 타케오주의 농촌 지역에 파견되어 농촌에 상주하며 각 주당 10개 마을에서 진행된 농촌개발사업 전반에서 활동했으며, 약 1년 간 마을 주민, 지방공무원, 중앙 공무원과 상시로 소통하며 캄보디아 농촌 전반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정성 조사는 동 기간에 조사원이 진행한 참여관찰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연구의 효과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해당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을 뿐, 연구자 소속기관의 활동과 본 연구 간에는 직접적 연관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

연구 모형을 통해 제시했듯이, 본 연구의 조사방법의 핵심은 트봉크뭉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농촌에 투영되고 있는 농촌에 대한 공식적 표상, 농촌 로컬리티, 농촌 주민의 삶을 밝혀내,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농촌 공간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캄보디아 정부, 해외기관, 그 밖에 민간 연구기관에서 캄보디아 농촌을 대상으로 진행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으며, 미비점 보완을 위해 조사원의 참여관찰과 추가적인 지역조사 활동을 진행했다. 항목별 세부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에 대한 공식적 표상

농촌에 대한 공식적 표상 확인을 위한 연구는 주로 선행연구 및 문헌 분석에 집중됐다. 할파크리는 농촌 지역의 상징성을 강화하는 농촌에 대한 공식적 표상

8)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정부에게 KOICA를 통해 새마을운동을 접목한 농촌개발 경험 전수를 요청함에 따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0개 시범 마을을 대상으로 농촌공동체 종합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캄보디아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시행계획서, 2016).

은 정부 기관의 발행물이나 담화문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했다 (Halfacree, 1996). 이에 기반을 두어, 오늘날 농촌의 표상을 규정하는 캄보디아 정부와 해외 원조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 및 제공한 자료를 분석하여 이들에게 내재한 표상이 무엇인지 확인했다. 특히 근래의 캄보디아 정부가 제시하는 국가발전전략과 농촌개발 전략은 이들이 바라는 농촌개발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내며, 이에 따른 수행부처들의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정부의 농촌에 대한 실제 인식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마찬가지로 KOICA를 중심으로 해외 원조기관들의 농촌개발 전략과 실제 활동을 분석하여, 외부의 시선에서 캄보디아 농촌을 어떠한 성격의 공간으로 규정하며, 장기적으로 농촌의 패러다임이 어떤 식으로 전환되어 갈지 확인하는 것이 공식적 표상 파악의 목표이다.

다만, 현재의 캄보디아 정부나 해외 원조기관의 종합적인 농촌개발 계획 관련 정보는 본 연구의 핵심연구지역인 트봉크롬만이 아닌 캄보디아 농촌 전반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트봉크롬 지역에만 내포된 표상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정부나 원조기관 수준의 공식자료만이 아닌 출처가 다양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세상 정부에 불리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배포하기가 쉽지 않아, 불가피하게 현지 관련 신문기사의 활용률이 높았다.

(2) 농촌의 로컬리티

특정 농촌 지역에서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생산과 소비의) 관습적 활동 및 이에 관한 특성으로 정의할 수 있는 농촌 로컬리티는 주로 농촌 지역에 대한 사회조사 및 통계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구현했다. 이를 위해 2013 캄보디아사회경제조사(Cambodia Socio-Economic Survey, CSES)를 비롯하여 정부가 공식적으로 진행한 농촌 관련 자료를 다방면에 걸쳐 분석하였다. 그밖에도, 로컬리티 연구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사용된 자료로 2015년 KOICA가 농촌개발 사업을 위해 트봉크롬, 캄퐁스프, 타케오를 대상으로 진행한 기초선 조사보고서(Baseline Survey Report)가 있다. 이 기초선 조사의 경우 본 연구의 연구 대상 지역인 트봉크롬, 캄퐁스프, 타케오에서 각 10개 마을씩, 총 30개 마을에서 설문조사와 주제별 집단토의 방법론(Focus Group Discussion, FGD)을 진행했다. 무엇보다 단순 무선표집(simple random sampling)으로 각 마을에서 최소

20가구씩 총 727가구의 대규모 표본에 기반을 두고 있어 조사의 신뢰도가 매우 높다(조사 기간: 2015년 4월~5월). 이 자료들을 기반으로 현재 캄보디아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관습적 활동과 이에 대한 요인들을 파악하며, 나아가 비교분석을 통해 다른 지역에 비해 고유한 트봉크뭉 농촌만의 로컬리티 발굴을 시도했다.

하지만 각자의 표상을 함유한 공공기관들의 자료만으로는 캄보디아 농촌 로컬리티에 대한 균형 잡힌 연구가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연구자의 참여관찰 내용을 캄보디아 농촌에 관한 대안적 연구들로 보완하여,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농촌 내면에 잠재된 로컬리티 파악을 시도했다.

(3) 농촌 주민의 삶

① 농촌 주민의 삶이 지닌 다양성 분석

트봉크뭉 농촌 주민의 삶을 파악하기 위해 1년간 참여관찰을 통한 관찰일지, 주민 인터뷰,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포함하는 내러티브 연구(narrative study)를 진행했다. 특히 이 연구의 경우 분절된 주민 각각의 생활을 세세히 기록하거나, 주된 행동방식을 파악하는 것이 아닌, 주민의 삶의 본연적으로 다양할 수밖에 없는 요인과 이로 인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를 위해 2016년 3월부터 약 1년간의 참여관찰 및 주민과 소통을 통해 얻은 질적 자료를 기반으로 표면적으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인식 차이와 긴장 관계를 기록하고자 노력했다. 관찰과 인터뷰는 수시로 진행되었으나, 연구를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진행한 주제별 집단토의(FGD)는 2017년 1월 트봉크뭉의 농촌 마을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관찰결과의 증명을 위해 주로 ‘캄보디아 현지’ 연구자가 진행한 캄보디아 농촌에 대한 연구를 활용하여, 외부인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주민 각자에게 내재한 다양성을 발굴할 것이다.

② 계층화분석과정을 통한 트봉크롬주민의 마을사업 우선순위 조사⁹⁾

트봉크롬 농촌 주민의 생활과 인식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계층화 분석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진행했다. 여기서 활용된 AHP 분석은 토마스 사티(Saaty, T. L)가 개발한 기법으로,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를 수리적으로 분석하여 각 항목별 가중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주어진 대안을 계층적으로 구분하여, 동일 계층에 속한 대안 간 1:1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의사결정자의 가치체계를 비교적 쉽고 일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Saaty, 1980). AHP 기법은 전문성이 있는 소수집단이 참여할 경우 높은 신뢰도를 보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민 중 마을개발 사업에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마을개발위원회(Village Development Committee, VDC)¹⁰⁾를 대상으로 마을별 선호사업에 대한 기초적 수준의 AHP 설문을 진행했다.

다만, 조사의 여건상 AHP 분석의 대상이 된 마을은 트봉크롬에 위치한 위히아삼보 마을(Vihear Sambor)과 꼴(Koul) 마을 두 곳으로 한정했다. 선정의 이유는 두 마을이 서로 접하고 있어 규모, 경제수준, 입지 등 대부분 요소에서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거나, 위히아삼보 마을은 참족(이슬람), 꼴 마을은 크메르족(불교)으로 민족·종교적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를 지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조사의 목적은 주민 각각이 지닌 성향과 의견을 세세히 확인하는 것이 아닌, 농촌 지역이 함유한 배경이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기에, 소수의 주민과 마을만을 대상으로 한 비교분석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의 구성 및 진행은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진행됐다.¹¹⁾ 첫째, ‘목적 및 대안의 도출 그리고 상호관계 설정’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문헌 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요구 반영 등을 통해 목적에 부합하는 대안을 도출하고, 이후 도출된 대안을 정리하여 계층을 구축한다. AHP 분석의 목적인 마을 발전을 위한 주민의 우선순위¹²⁾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 지구촌 새마을ODA사업

9) 연구자는 이 조사 내용을 활용하여 KOICA에서 주관하는 제14회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에 ‘개발도상국 농촌개발의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모델 구축: 캄보디아 농촌 마을의 현지 조사와 지역기업네트워크 지원 가능성 사례’로 응모작을 작성한 바 있음(김권호·정운관, 2017)

10) 캄보디아의 각 마을은 마을개발계획 구성과 그에 따른 사업 활동관리를 위한 5~7명의 VDC 위원을 보유하고 있다.

11)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연산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며, 변규환 외(2016)을 참고

12) 질문 내용: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which project is more necessary for

에서 대범주로 주로 사용하는 ‘소득창출’, ‘생활환경개선’, ‘정신계발 및 역량개발’ 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층화했다. 항목별 세부 사업 및 설명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사업 계층 구분 및 설명

대범주	하위 범주	설 명
소득창출	농업생산성 향상	소규모 관개시설(수로 및 연못 공사), 저수지 건설, 농자재 보급(종자, 비료, 제초제) 등
	미소금융	저금리로 소액대출
	가축은행	소 은행, 돼지 은행, 닭 은행, 오리은행 등
	농산물 개발 및 마케팅 개선	신품종 작물·상품 개발, 유통망 개선, 시장개척, 제품홍보 등
	기술교육	오토바이 수리, 수제품 제작, 농업기술 등 교육
생활환경개선	가정생활환경 개선	화장실 및 부엌시설 개선, 주택 수리 및 보강 등
	교육인프라 개선	유치원, 초등학교 및 상위 교육기관 설립
	마을 공동 인프라 개선	마을도로 공사, 마을회관 건축, 마을 사원 증축 등
	건강 및 보건 환경 개선	수도 공급 및 수질 개선, 보건소 설립 등
정신계발 및 역량개발	주민 정신계발 교육	근면·자조·협동 등 정신계발을 위한 교육 및 활동 지원
	주민 조직 및 조합 구성	주민조직(여성회, 청년회, 신용 조직 등)과 협동조합 설립
	사업 및 조직운영 교육	리더십, 사업 및 조직 관리, 회계, 주민회의 진행 등의 교육

출처: 캄보디아 농촌공동체 종합개발사업(KOICA, 2016)을 기반으로 저자 작성

둘째, ‘중요도 산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구성된 계층구조를 토대로 상위 범주에 대해 얼마나 대안을 선호하는지를 쌍대비교로 평가한다. 설문조사는 2017년 1월 15일 위히아삼보(6인)와 꼴(5인)의 마을개발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각 대안 간 가중치 산출에는 AHP 분석 프로그램인 EXPERT Choice 11을 이용했다.

셋째, ‘일관성 검증’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평가가 얼마 타당한지 점검한다. 예를 들면, A와 B대안 중 A의 선호도가 높고, B와 C 대안 중 B의 선호도가 높았다면 A와 C 대안의 비교에서는 당연히 A의 선호도가 높아야 한다. 이처럼 쌍대비교 간의 일관성 정도를 확인하여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산출한다. AHP 분석의 개발자인 Satty는 경험적 분석을 통해 CR이 0.1(10

developing your village? Please check the level of your preference.

%)¹³⁾이하면 평가자가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reasonable), 0.2(20%) 이하면 용납(tolerable)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일부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설문 문항의 상·하 요소 간 독립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0.2를 허용범위로 하고 있다(Satty, 1980; 1990). 때문에 이 연구는 주민의 사업 및 설문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을 고려하여 $CR \leq 0.15$ 를 허용범위로 설정했다(이재은, 2007).

마지막으로 ‘가중치 통합’ 단계에서는 모든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우선순위를 산출한다. 이 연구에서는 각 VDC의 평가치를 기하평균 한 후, 마을별 사업선호도를 산출하여, 최종 순위를 파악하였다. 자세한 결과는 본문에서 다룬다.

13) 경험적 법칙에 의해 $CR < 0.1$ 인 경우를 기준으로 할 뿐,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설명이 없다. 실제로 노화준 등(1996)이 일관성 비율이 0.2 미만인 경우에도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일관성이 유지됨을 증명한 바 있다(이재은, 2007).

II. 캄보디아 트봉크뎀 농촌에 대한 공식적 표상

1. 캄보디아 농촌에 대한 공식적 표상

농촌에 대한 공식적 표상은 농촌을 둘러싼 권력자들의 보편적인 견해와 해석이 반영된다. 오늘날의 캄보디아 농촌 개발의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주체들은 물론 중앙정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들이며, 일부 NGO, 연구기관 등의 민간기관은 규모 및 역량의 제약으로 인해 대안적 의견 제시할 뿐, 캄보디아 농촌 전반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 농촌에 있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 해외기관이다. 개발도상국 농촌의 빈곤과 열악한 삶의 질 문제가 국제사회에 주목받음에 따라,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의 국가별 해외 원조기구, 월드비전(World Vision) 등의 국제 비정부기구 등이 농촌 지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와 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이 장에서는 캄보디아 농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농촌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들이 조성하는 표상을 구현하려 한다.

1) 캄보디아 정부의 농촌에 대한 공식적 표상

(1) 국가의 발전 전략으로서 농촌

오늘날 캄보디아 정부가 견지하는 발전에 대한 비전과 농업·농촌에 대한 견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는 국가 수준의 발전계획인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 RS)¹⁴⁾’ 과 그 주요 이행수단으로서 ‘국가전략개발계획(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NSDP)’ 이다. 2004년에 처음으로 공표된 RS는 ‘거버넌스의 개선(good governance)’ 을 중심으로, ‘물리적 인프라 개발(Development of Physical Infrastructure)’ , ‘역량 강화 및 인적자본 개발(Capacity Building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 ‘민간 부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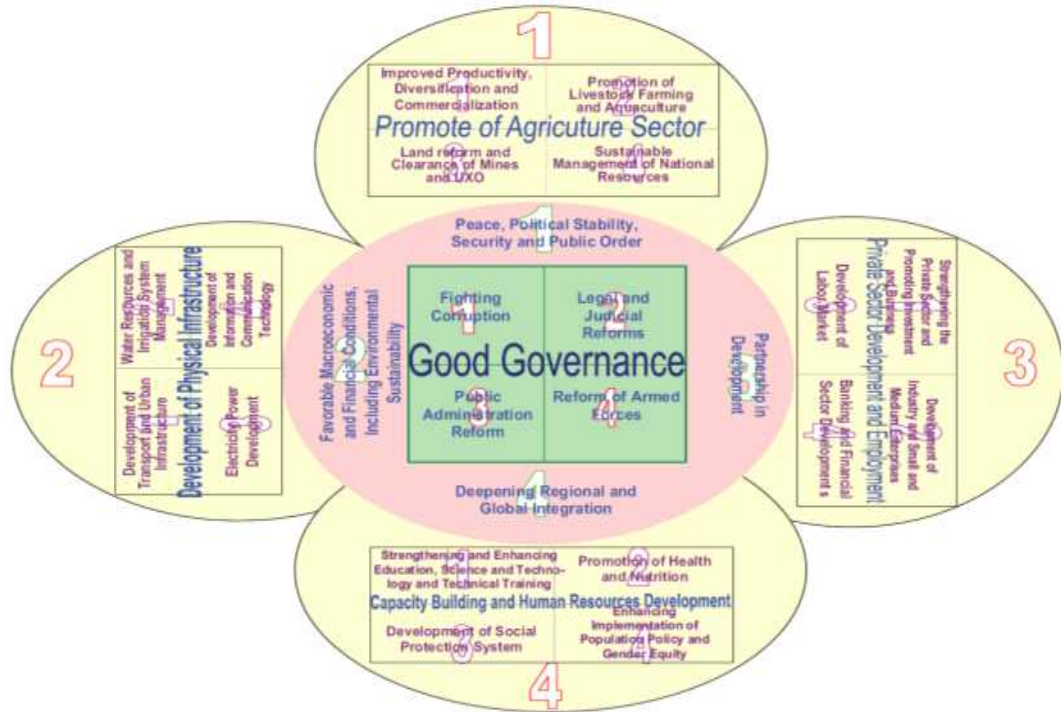
14) 공식명칭은 ‘성장, 고용, 평등 그리고 효율성을 위한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 for Growth, Employment, Equity and Efficiency)’ 이다(Kingdom of Cambodia, 2013).

발 및 고용 확대(Private Sector Development and Employment)’ 와 함께 ‘농업 부분의 촉진(Promote of Agriculture Sector)’ 이 사각형의 각 축을 이루고 있다(<그림 5> 참고). RS는 처음 공표된 이후 내각의 구성이 바뀔 때마다 새로이 개정하여 2008-2013까지의 2단계 전략(Phase II),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3단계 전략(Phase III)으로 개정되어왔다. 하지만 각 단계의 개정에 있어서 RS를 구성하는 각 축은 수정 없이 유지되었으며, 축을 구성하는 세부목표에서 부분적인 변화만이 나타났다(<표 4> 참고). 이는 곧 캄보디아 정부가 지속해서 농업 분야의 개선을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로 두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캄보디아 정부는 3단계 전략의 전문을 통해 ‘농업의 강화는 생산성(productivity)과 다각화(diversification)의 향상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경제 성장과 빈곤 완화의 추진력이 될 수 있을 것’ 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¹⁵⁾. 국가의 전략적 비전과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한 RS와 달리 NSDP는 RS를 성취하기 위한 실질적인 이행 수단이라 할 수 있다. 5개년 계획으로 2006부터 201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계획된 NSDP에는 캄보디아의 농촌과 농업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두드러진다. 하지만 2008년 몰아닥친 국제금융위기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캄보디아를 흔들었고, 외부 충격에 대응하려는 응급조치로 NSDP Update 2009-2013을 내놓는다. 현재(2018년 초)는 2014년에 개정 공표된 NSDP 2014-2018을 이행 수단으로 앞서 언급한 RS PhaseIII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 전략 수준에서 보았을 때, 정부의 농업에 대한 관심은 타 산업 분야 보다 절대 부족하지 않다. 이는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약 80%가 농촌에 거주하며, 이들의 빈곤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필연적 선택이다. 하지만 RS가 처음 공표된 이후 약 2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경제지표는 제조업과 관광업을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또한 RS를 구성하는 세부목표가 크게 변하지 않은 점은 농업 분야의 달성정도가 매우 저조함을 의미한다. 특히 RS의 농업 부분 세부목표의 다수를 구성하는 토지(소유권)개혁, 지뢰 제거, 자원관리 개선(산림, 어장 등) 등의 항목은 농촌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는 기본 전제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장기적인 강화 전략으로서 제시되는 목표는 생산성의 강화와 다각화라는

15) <http://www.cambodiainvestment.gov.kh/>에 업로드된 사각전략 PhaseIII 전문 참조

폭넓은 개념이 유일하며, 앞서 전문에서 소개했듯이 경제성장과 빈곤 완화의 추진력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시아개발은행(ADB, 2012)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생산성 증대와 다각화를 목표로 내걸었으나 실제 이행을 위한 소규모 농가 지원정책은 매우 빈약하다 지적했다.



<그림 5> 성장, 고용, 평등 그리고 효율성을 위한 사각형 전략(Phase III)
출처: Cambodian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Board(CRDB)/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CDC) 웹사이트 (<http://www.cdc-crdb.gov.kh/>)

<표 4> 사각전략 농업 부분 세부목표

	사각전략 I (04-07)	사각전략 II (08-13)	사각전략 III (14-18)
세 부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 강화 및 다각화 · 토지개혁 및 소유권 보장 · 산림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의 강화 및 다각화 · 토지개혁 및 지뢰 제거 · 산림 개혁 · 어업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 다각화, 상품화의 향상 · 토지개혁 및 지뢰, 불발탄제거 · 국가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 축산과 어업의 촉진

출처: CRDB/CDC 웹사이트 (<http://www.cdc-crdb.gov.kh/>)의 내용 참고

(2) 개발의 대상으로서 농촌

1993년 정부의 수립 이후 캄보디아는 농촌 지역 빈곤 극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왔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 부처로 농촌개발부 (Ministry of Rural Development, MRD)를 설립했다. 이에 따라 MRD는 농촌 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사업의 수립, 수행, 관리, 감독 등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았다. MRD에 따르면 농촌개발 과정에서 캄보디아 정부(Royal Government of Cambodia)가 가장 우선시하는 목표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 정부와 원조 기관에 대한 의존이 아닌, 경제적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의식을 촉진하여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함
- 농촌 공동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농업생산량 증대, 농산업 개발, 농산물 마케팅의 개선을 달성함
- 삶의 질 개선 프로그램을 통한 농촌 생활의 자부심 회복¹⁶⁾

위 세 가지 목표는 캄보디아 정부가 자국 농촌에 대해 견지하는 인식을 함유한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각각에 대한 세부 설명과 실행계획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중앙정부가 명시한 목적이 수행 부처의 실질적인 정책 수행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세 가지 목표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는 농촌 지역의 높은 원조의존도, 열악한 생산 인프라, 약화된 농촌 주민의식이라는 세 가지 제약사항 극복을 우선시하며, 농촌에 내재하여 있는 가치나 역할 발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농촌개발은 단순히 농업 관련 정책만이 아닌, 농촌 인프라, 기초보건서비스, 수자원과 위생 등 다양한 분야가 접목된 영역이다. 그 때문에 각 세부사업별로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으며,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본 절(節)에서 강조하는 정부의 측면에서도, 특화된 역할에 따라 여러 부처가 직·간접적으로 농촌과 연계된다. 이 중 농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처로는 농촌개발부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부(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AFF). 수자원기상부(Ministry of Water

16) 캄보디아 농촌개발부 웹사이트: <http://www.mrd.gov.kh/>

Resources and Meteorology, MoWRAM),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 MOI), 그리고 부총리 주재로 운영되는 농업농촌개발위원회(Counci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CARD)를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현재 중앙정부의 농촌과 농업에 대한 견해는 긍정적인 농촌 내부가치보다는 극복의 대상으로 외부가치를 더욱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각 중앙 부처들이 제시하는 농촌 대상의 주요 사업 및 전략을 통해 중앙정부가 인식하는 농촌 지역의 주요 제약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표 5> 캄보디아의 농촌개발 관련 중앙부처 및 주요 전략

부처	주요 전략
농촌개발부 (MRD)	농촌개발 사업의 수행 및 계획의 분산화 증진 주민참여 및 지역 기반의 통합적 농촌개발의 촉진 정부부처 및 시민사회의 교류를 위한 포럼 개최
농림수산부 (MAFF)	식량안보, 농업 생산성 증대 및 다각화 농업관련 연구 및 범위 강화 농산물의 시장접근성 개선 기관 및 제도적 역량 강화 토지개혁 - 토지시장 개발 및 빈곤층 토지 접근성 확대
수자원기상부 (MoWRAM)	수자원 개발 및 관개사업 수행 홍수 및 가뭄 관리 수자원 지속가능성 증대 수자원 및 기상 정보 관리
내무부 (MOI)	* 각 district와 commune 단위까지 구성된 주민조직을 관리함으로써 농촌 사업 전반에 간접적으로 관여함
농업농촌 개발위원회 (CARD)	식량 안보 및 사회적 보호책 마련 농업 생산성 증대 및 다각화, 농촌기업 기반 마련 지역 공동체 기반의 통합적 농촌개발 프로그램 계획 시민사회를 비롯한 농촌 개발 파트너와의 연계

출처: KOICA 캄보디아 농촌개발 마스터 플랜(2015b) 발췌 및 일부수정

<표 5>를 통해 농촌개발 분야에 다양한 캄보디아 정부 부처들이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농촌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관심을 대변하는 것이나, 과도한 부처로 발생하는 업무경계의 모호성과 행정적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ADB, 2012). 각 부처가 제시하는 주요 전략을 통해 정부·지역·

주민의 농업 역량 강화, 생활환경 개선, 농업 인프라 개선, 농업용수 개발 등 농촌·농업 분야 전반의 제약사항에 대한 개발 의지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2010년 기준으로 실제 정부 지출액은 농업 분야 1.4%, 농촌개발 분야 1.9%에 불과하여 실행 의지에 의문이 따르며, 현재 국가 정책과 경제 지표상 농업의 우선순위는 제조업, 관광업에 비해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캄보디아 정부의 상황은 농촌·농업 분야의 제약을 인지하고 개선의 의지를 갖추고 있으나, 부족한 예산과 행정적 비효율성으로 인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우려가 높다(ADB,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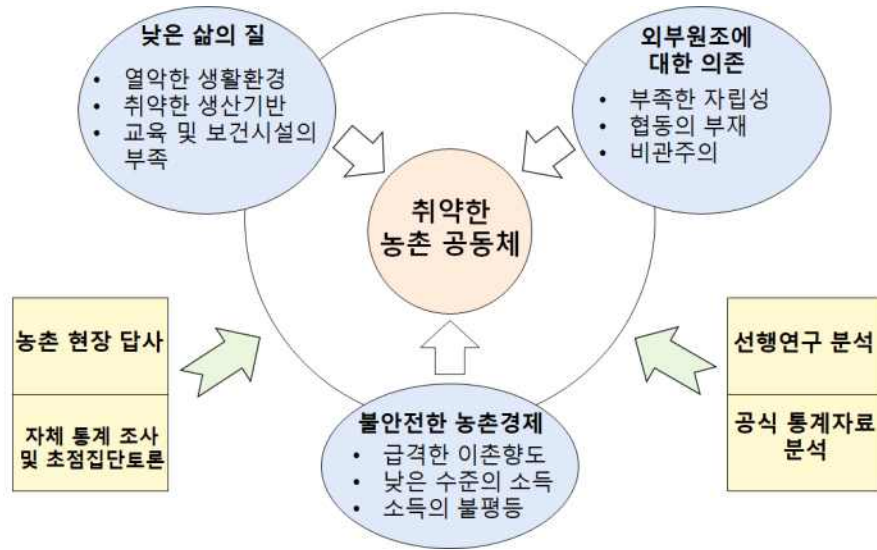
2) 해외기관의 캄보디아 농촌에 대한 공식적 표상

캄보디아 정부와 마찬가지로 원조를 제공하는 해외 공여국(donor country) 역시 경제성장과 빈곤 극복을 이룰 수 있는 핵심 동력으로 농촌개발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다. 사실상 오늘날 개발도상국 농촌에 관한 논의는 개발도상국 스스로가 아닌 국제기구와 해외 선진공여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캄보디아 농촌이 지닌 제약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ADB, 2012; KOICA 2016). 다만, 대부분의 원조기구가 자기관의 원조사업의 목적으로 농촌 지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에, 이 연구의 다수가 농촌이 원조가 필요한 대상임을 전제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연구 결과에 따라 각 기관은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현지점에도 다양한 농촌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OECD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총 27개의 국가와 13개의 원조기관이 약 8억 8,500만 달러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ODA)를 제공했으며 이 중 9.4%가 농촌개발 사업에 투자되었다. 농촌개발 분야에 가장 큰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는 기관은 독일이며 World Bank 산하의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가 그 뒤를 따른다. 이들은 각자의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각각 자기관이 비교우위에 있는 토지 및 농촌경제 개발, 소액금융을 통한 경제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KOICA, 2015b). 한국 역시 농촌 및 농업개발 분야를 중점협력 분야로 선정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캄보디아 원조의 6.8% 수준인 약 2,100만 달러를 제공하여(캄보디아

아 국가협력전략, 2016),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캄보디아 농촌의 종합적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¹⁷⁾.

다만, 앞서 언급한 듯 필연적으로 다수의 해외 원조기관이 캄보디아 농촌을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이 진행하는 지역조사의 결과가 부정적인 요인들 위주로 해석이 되는 것 역시 사실이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대외무상원조기관인 KOICA(2015)는 캄보디아 농촌개발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해 캄보디아 농촌에 관한 선행연구 및 공식 통계자료 활용과 함께, 캄보디아의 트봉크뎀, 캄퐁스프, 타케오 3개 주(본 연구의 연구지역과 같음)의 30개 마을에 대한 설문조사와 주제별 집단토의(FGD)를 진행하여 <그림 6>과 같이 현재의 캄보디아의 현황을 정의했다. 이에 따르면 오늘날의 캄보디아 농촌은 긍정적 요인을 찾기 힘들며, ‘낮은 삶의 질(low quality of life)’ 속에 생활하며, ‘불안정한 경제상태(unstable rural economy)’에 처해있고, ‘외부원조에 의존적(Dependency from outside supports)’인 ‘취약한 농촌공동체(vulnerable rural communities)’이다(KOICA, 2015b). 이는 분명 일정 부분 사실에 기반을 두나, 본래의 목적에 따라 부정적 요인 중심으로 부각되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각 항목별 세부목록을 확인하면 캄보디아 농촌이 지닌 제약은 농촌과 농업환경 전반을 아우른다. 이는 단순히 KOICA만이 아닌 다른 해외 원조기관과 캄보디아 정부까지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인식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캄보디아 농촌에 대한 공식적 표상은 ‘개발과 원조가 필요한 불안정한 존재’인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17)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진행된 ‘캄보디아 새마을운동기반 농촌공동체 개발 사업(2014-2018/800만 달러)’이 있다.



<그림 6> 캄보디아 농촌마을의 현재 상황(KOICA의 분석결과)

출처: KOICA 캄보디아 농촌개발사업 마스터 플랜(2015b)의 내용을 번역함

2. 트봉크뭉주에만 해당하는 공식적 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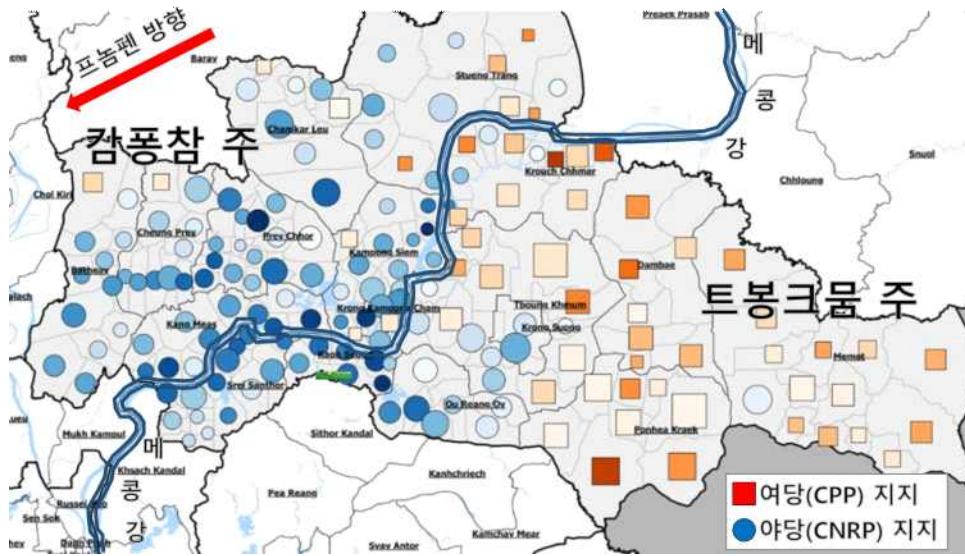
앞서 캄보디아 농촌 지역에 대한 공식적 표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지만, 모든 농촌 지역이 동일 표상을 지니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캄보디아 농촌의 경우 지역 단위 정부의 정책, 연구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여 각 세부 지역별 표상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다만, 연구지역 소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트봉크뭉은 2013년 12월 31일 시하모니 국왕의 왕령에 따라 2014년 당시 주단위에서 가장 큰 인구 규모를 갖던 캄퐁참주에서 새롭게 분리된 신생 주이다. 분리되기 이전 캄퐁참에 대한 대외적인 표상은 매우 분명했다. 우선, 주의 명칭이 현지어로 ‘참(cham)족의 포구(kampong)’ 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 역사적으로 이 지역은 메콩강을 중심으로 참족의 인구 분포가 가장 높은 지역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캄보디아 국민에게는 1993년 이래 최고 권력자의 자리를 놓지 않고 있는 훈센 총리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까지 훈센 총리의 친형인 훈넝(Hun Neng)이 주지사로 있었을 정도로 중앙정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이를 배경으로 캄보디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캄퐁참을 두 개의 주(캄퐁참과 트봉크뭉)로 분리하는 중앙정부

결정은 해당 지역에 대한 표상이 직접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리 당시 정부는 ‘행정적 효율성을 위해 인구 규모가 큰 캄퐁참을 분리한 것이며, 향후 다른 주에 대해서도 동일한 정책을 진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2013년 7월에 진행된 캄보디아 총선 결과가 작용한 것이라 비판을 했다(The Cambodia Daily 기사, 2014.1.10.). 당시 총선에서는 1993년 이후 정권을 놓치지 않고 항상 압도적으로 승리해왔던 훈센 총리가 속한 여당 캄보디아인민당(Cambodian People’s Party, CPP)이 당시 야당이었던 캄보디아구국당(Cambodia National Rescue Party, CNRP)의 기세에 눌려 근소한 차이로 겨우 승리했다¹⁸⁾. 더 논란이 되었던 점은 훈센 총리의 고향인 캄퐁참에서 여당이 패했다는 점인데, 수도 프놈펜과 접하여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인 메콩강 서부 지역(현 캄퐁참)은 야당이 승리하였고, 상대적으로 낙후한 메콩강 동부지역(현 트봉크뭉)은 여당이 승리한 결과였다¹⁹⁾. 이로써 향후 의석수 확보를 위해 여당 지지 지역인 트봉크뭉을 분리했다는 주장이다(The Phnom Penh Post 기사, 2014.1.10). 진실이 무엇이든 분명한 점은 트봉크뭉은 지역 주도적인 의견표출이 아닌, 중앙정부의 편익에 따라 정부 주도하에 충분한 준비 없이 독립했다는 점이다. 주민은 사전에 정보를 알지 못했고, 연구자가 거주하던 2017년 중반에야 주청사를 비롯한 일부 지방정부시설들이 완공됐다. 또한 대부분의 트봉크뭉 지방공무원들은 캄퐁참주 공무원 출신으로 캄퐁참에서 출퇴근 했다. 이는 곧 현재 정부와 캄보디아 대중은 트봉크뭉에 대해서 친정부 성향의 순응적인 지역으로 인식함을 유추할 수 있다.

18) 패배한 선거였으나 여당에 의해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논란도 존재한다(Human Right Watch, 2013.1.31).

19) 최근 도시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야당에 대해 지지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The Diplomat 기사, 2017.05.19).



<그림 7> 2013년 총선 캄퐁참주 지지성향(크기-유권자 수, 채도-지지율)

출처: The Cambodia Daily(2014.1.10)의 그림 자료 수정

3. 소 결: 도움이 필요한 순응적 존재로서 캄보디아 트봉크뭉 농촌

이 장에서는 현재까지 캄보디아 국내외에서 진행된 농촌 지역에 관한 선행연구, 정부의 정책 및 공식적 의사 표현, 그리고 정치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트봉크뭉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농촌이 보유하는 공간적 표상을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현재의 캄보디아 농촌은 지역 내 열악한 환경과 기반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대표되는 경향이 컸다. 역량개발, 생산·생활환경 개선, 사회구조, 주민 의식 등 농촌과 농업 전반에 걸친 제약이 강조되었고, 상대적으로 지역 고유의 장점과 가치에 대한 관심은 소홀했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 및 해외 원조기구들은 캄보디아 농촌을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정의했으며, 소속 기관의 사업목적에 따라 농촌의 부정적 측면이 더욱 주목받기도 했다. 특히 핵심연구 지역인 트봉크뭉은 최근에 발생한 정치적·행정적 과정의 결과로 친정부적 순응적 지역으로 인식됨으로써, 향후 농촌개발 사업들이 지역의 의견보다는 외부기관의 견해가 먼저 적용될 여지를 남겼다.

Ⅲ. 캄보디아 트봉크뎀 농촌의 로컬리티

1. 농촌의 열악한 자본주의 생산 기반

오늘날의 캄보디아는 21세기 이래 경제적 성장과 함께 빈곤의 경감을 비교적 꾸준히 성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앞서 언급한 듯 빈곤선 이하 인구비율 50% 경감이라는 MDGs의 첫 번째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앞에 ‘캄보디아의 정세 및 농업 부분 현황’ 참고). World Bank(2014)는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i)쌀 가격의 상승, ii)쌀 생산량의 증대, iii)농외사업의 수익성 증대, iv)농촌 근로자의 임금 상승, v)도시지역의 임금 상승이라는 다섯 가지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제시된 다섯 가지 요인 중 4가지가 농촌 지역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촌은 캄보디아의 빈곤 완화에 있어 능동적 주체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농촌, 특히 트봉크뎀주의 경제적인 기반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KOICA(2016)의 기초선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트봉크뎀의 1인당 하루 평균 소득(1.38달러)은 함께 조사된 비교 집단인 캄퐁스프주(1.56달러)와 타케오주(1.69달러)보다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특히 트봉크뎀의 경우 지역 내 정기적 소득의 원천(예: 공장, 작업장 등)이 부족해 소득이 편차가 매우 크다. 이 수치는 정부 주도하에 진행된 2013 CSES(Cambodia Socioeconomic Survey)에서 캄보디아 전체 농촌주민의 1인당 평균소득을 6144리엘(약 1.51달러)로 추정된 평균치보다 낮은 소득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낮은 소득의 원인은 다양하지 못하고 취약한 소득원천에 있다. 절대다수 캄보디아 농촌의 소득 원천은 농업에 집중되어 있으나, 트봉크뎀의 경우 지역 내 현무암성 적색토양을 기반으로 프랑스 식민 시대부터 조성된 대규모 플랜테이션의 영향으로 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국영기업이 운영하던 플랜테이션을 민간 기업이 입찰해 운영하고 있어, 주민이 실제 보유한 농장의 규모는 매우 영세하다(Dararath et al, 2011; 김권호 외 2017). 이 때문에 현재 주민이 이용 가능한 토지 대부분은 작물경작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표 6>을 통해 알 수 있듯이 3개 주 전체적으로 쌀 경작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약 92.8%), 특징적으로 트봉크롬의 경우 카사바 경작(54.1%)과 앞서 언급한 고무 생산(22.7%)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른 지역에는 카사바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보급된 데 반해 트봉크롬의 경우 월등히 긴 카사바 생산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국경을 따라 마주 보고 있는 베트남의 영향이 크다. 일대에서 재배되는 카사바는 내수용이 아니며, 베트남으로 넘어가 재가공하여 판매되기 때문이다. 증가하는 수요에 따라 카사바 생산 농가도 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카사바의 시장성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FAO에 따르면 2005년 캄보디아 전체의 카사바 생산량이 53만 톤에서 2009년 340만 톤으로 급증하는 동안, 판매가격은 \$263.4/ton에서 \$95.7/ton으로 급감하였다²⁰⁾. 이후에도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시장가격은 큰 폭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16년 기초선 조사로 진행된 주민 인터뷰에 따르면 트봉크롬의 지역 내 카사바의 생산성은 토양비옥도의 악화로 인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표 6> 가구별 재배작물(중복 응답)

내 용	주						전체	
	트봉크롬		캄프스프		타케오		N	%
	N	%	N	%	N	%		
쌀	153	82.7	175	97.2	177	98.9	505	92.8
카사바	100	54.1	0	0	1	0.6	101	18.6
고무	42	22.7	0	0	0	0	42	7.7
견과류	0	0	34	1.89	1	0.6	35	6.4
녹두	2	1.1	22	12.2	6	3.4	30	5.5
과일	9	4.9	8	4.4	9	5	26	4.8
채소	1	0.5	14	7.8	2	1.1	17	3.1
수박	1	0.5	4	2.2	7	3.9	12	2.2
캐슈 또는 초고버섯	0	0	5	2.8	6	3.4	11	2
고구마	1	0.5	3	1.7	3	1.7	7	1.3
옥수수	3	1.6	1	0.6	1	0.6	5	0.9
사탕수수	1	0.5	1	0.6	0	0	2	0.4
콩	1	0.5	0	0	0	0	1	0.2
계	185		180		179		544	

Q: 토지에서 어떤 작물을 재배하십니까?

출처: KOICA 캄보디아 농촌개발사업 기초선 조사 보고서(2015a)

20) FAO STAT: <http://www.fao.org/faostat/> 자료 인용

1) 트봉크롬의 낮은 농업 소득과 그 요인

트봉크롬 위히아삼보(Vihear Sambor) 마을 주민 인터뷰: “우리 마을 주민들은 평균적으로 1ha당 쌀을 약 1.5~1.9ton을 수확(비 관계지 기준)하며, 생산된 쌀의 약 50% 내외(나머지는 자가소비)를 1kg에 0.2달러 정도²¹⁾에 중간상인(middle man)에게 판매합니다. 논농사에 드는 투자비용이 1년에 약 45만 리엘(115달러)이며, 이 비용을 제외하면 가구당 연평균 250달러 정도씩 소득이 남아요. 일부 소규모 소매업을 운영하는 가구도 연평균 150달러 정도의 수익을 올립니다(2017년 1월 기준).”

캄보디아 정부는 NSDP를 통해 농촌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들로 부족한 노동력, 열악한 인프라, 제한된 연구와 개발사업, 미약한 기술보급, 민간분야의 작은 투자, 기후변화, 자연재해, 병해충 등을 뽑았다(NSDP, 2014). 이에 기초선 조사 자료에 따르면 3개 주의 주민들은 공통으로 농업용수 부족(72.7%)과 병해충(36.3%)이 농업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보았다. 다만, 트봉크롬의 경우 다른 두 개 주에 비해 병해충, 비료 부족, 기술의 부재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 요인별 세부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의 소유권 및 생산성의 문제

위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 최근 농산물 가격 및 생산량이 일정 부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은 매우 제한적이다. 더 큰 문제는 농촌에 토지 미보유 가구가 많다는 점이며, 이들의 경우 매년 소득의 상당부분인 1ha 당 100~200달러 정도를 임대료로 지급해야 한다(동일 인물 인터뷰). 토지 소유권 문제는 오늘날 캄보디아 농업의 가장 대표적인 제약 중 하나이다. 1970년대 말 크메르루주에 의해 무상몰수되었던 토지들이 1989년 사유재산제도의 도입과 함께 자유시장 체제로 재정리되면서 토지소유권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거주민의 가구 규모에 따라 토지를 공정하게 재분배했던 정

21) 시장에 대한 정보 없이 가격은 고정되어 거래된다. 카사바의 경우 1kg당 비 건조 0.045달러, 건조 0.124달러 수준에서 거래된다(주민 인터뷰 인용).

부 정책은 오히려 가구 구성원의 편차에 따라 토지가 불균형적으로 분배되는 부작용을 일으켰다(KOICA 마스터 플랜, 2015b). 현재에도 토지 미보유자에 대한 국가적 통계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가구주가 젊거나 여성인 경우의 대부분이 토지를 보유하지 못하거나 사실상 그와 유사한 상태인 것으로 예상된다(USAID, 2011). 마찬가지로 기초선 조사에 참여한 3개 주의 응답자 중 20%가 농지를 보유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트봉크뎀의 농지 미보유자의 비율은 약 21%로 타케오(25%)보다는 다소 낮았으나 캄퐁스프(8%)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표 7> 농사 가능 토지 보유율

내 용	주						전체	
	트봉크뎀		캄퐁스프		타케오		N	%
	N	%	N	%	N	%		
보유	211	78.7	188	92.2	184	72.2	583	80.2
미보유	57	21.3	16	7.8	71	27.8	144	19.8
계	268	100	204	100	255	100	727	100

Q: 농사용 토지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출처: KOICA 캄보디아 농촌개발사업 기초선 조사 보고서(2015a)

농지의 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점 역시 주민들이 생각하는 낮은 소득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농업생산량이 늘었다는 국가적 자료와 달리, 기초선 조사에서 전년 대비 쌀 생산량 증가 여부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서 3개 주 평균 약 15%만이 생산량이 증가한 것 같다고 답변했으며, 주별로 보면 트봉크뎀 15.4%, 캄퐁스프 13.4%, 타케오 15.9%로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오히려 감소했다는 인식은 전체의 59%에 달해 생산성 증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2) 농업 투자의 부족

캄보디아 농촌은 부족한 관개시설로 인해 고질적인 농업용수 부족에 시달린다. 기후적으로는 1년 3작도 가능하지만, 트봉크뎀과 캄퐁스프 대부분의 농가가 1회 경작만을 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전통적인 농경 방식에서는 우기인 5월부터 12월 까지가 농번기이며 전체 쌀 생산량의 80%가 이때 재배되며 자급자족을 위한 몇 가지 전통적 작물을 함께 재배한다. 반면 건기인 12월부터 5월까지는 소득창출을 위해 환금성이 높은 밭작물을 재배한다(KOICA 마스터 플랜, 2015b). 하지만 타케오의 경우 주 내부를 가로지르는 메콩강 지류의 영향으로 일부 1년 3작까지 행하고 있어, 캄보디아 전체 농촌의 관개시설 개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농기구, 비료 등에 대한 농업투자도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기초선 조사 결과에 따르면 3개 주 주민들은 여전히 쟁기, 소달구지, 씨레 등의 전통 농기구의 사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트봉크뎀의 경우 다른 2개 주 보다 전통농기구의 보유비율이 눈에 띄게 낮고, 핸드트랙터(현지어로 *kou yun*, 40.5%)와 소형트랙터(11.5%)의 보유농가 비율이 높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트봉크뎀 지역의 카사바 재배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밭에서 뿌리식물인 카사바를 대량으로 재배하기 위해 기계 동력이 필요하여 기존에 보유하던 소를 팔아 핸드트랙터²²⁾를 마련하는 농가의 수가 늘었다. 반면 화학비료의 사용 비율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3개 주 평균 81%로 조사된 화학비료 사용 농가의 비율은 트봉크뎀이(53.6%)이 캄퐁스프(93.1%), 타케오(96.7%)보다 훨씬 밑돌았다. 이는 트봉크뎀 농가 자체에 자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카사바의 경우 쌀보다 비료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기도 하다²³⁾.

22) 핸드트랙터의 현지어인 kou(소) yun(기계, 자동)은 ‘기계 소’라는 뜻이다.

23) 캄보디아 트봉크뎀주 농촌개발부(Tboung Khmum Provincial Department of Rural Development)의 소속 공무원의 인터뷰에 따르면, 카사바 재배의 가장 큰 장점은 별다른 화학비료와 노동력의 투입 없이 대량재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반면 주민들의 경우 최근 토양비옥도의 하락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표 8> 농기계 보유 상황(중복 응답)

내 용	주						전체	
	트봉크뎀		캄퐁스프		타케오			
	N	%	N	%	N	%	N	%
양수기	40	47.6	38	27.9	85	74.6	163	48.8
쟁기	13	15.5	99	72.8	24	21.1	136	40.7
소 달구지	12	14.3	93	68.4	27	23.7	132	39.5
씨레	13	15.5	92	67.6	23	20.2	128	38.3
핸드 트랙터	34	40.5	39	28.7	33	28.9	106	31.7
정미기	9	10.7	9	6.6	8	7	26	7.8
소형 트랙터	10	11.9	3	2.2	5	4.4	18	5.4
대형 트랙터	2	2.4	0	0	3	2.6	5	1.5
계	84		136		114		334	

Q: 가구에는 어떤 농기구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출처: KOICA 캄보디아 농촌개발사업 기초선 조사 보고서(2015a)

<표 9> 2014년 화학비료 사용 여부

내 용	주						전체	
	트봉크뎀		캄퐁스프		타케오			
	N	%	N	%	N	%	N	%
사용	105	53.6	175	93.1	177	96.7	457	80.6
미사용	91	46.4	13	6.9	6	3.3	110	19.4
계	196	100	188	100	183	100	567	100

Q: 2014년에 화학비료를 사용하셧습니까?

출처: KOICA 캄보디아 농촌개발사업 기초선 조사 보고서(2015a)

(2) 마케팅 기반의 부족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열악한 마케팅 역량 역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손꼽힌다. <표 10>를 참고하면 3개 주 전반적으로 낮은 시장가격(66.6%)을 농산물 판매에 관한 가장 큰 문제로 꼽았는데, 이 중에 특히 트봉크뎀이 다른 2개 주보다 낮은 가격(73%), 운송수단의 부재(14.5%), 중간상인의 과도한 개입(14.5%)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주요 소비시장인 수도 프놈펜으로부터 거리가 트봉크뎀이 다른 2개 주보다 50~60km가량 더 떨어져 있으며, 특히 조사대상 가구의 경우 트봉크뎀을 관통하는 7번 국도로 부터 비포장 길로 약 한 시간가량 더 들어가야 하는 고립된 지역에 위치하기 때

문이다. 결과적으로 생산된 농산물은 전적으로 중간상인을 통해서 판매되며, 이때 주민들은 시장가격에 대한 정보 없이 제시된 가격에 따라 일괄적으로 넘기고 있어 부작용이 크다. 특히 앞서 언급한 듯 트봉크롬에서 생산되는 카사바의 거의 전량이 중간상인을 베트남으로 수출되어 가공되는 데, 이 과정이 정부의 관여가 없는 비공식적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적절한 생산가격을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조차 그 어떤 조세 이익도 얻지 못하고 있다(ADB, 2012). 현재 농산물에 설정된 시장가격은 농촌 주민들의 열악한 시장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반영된 산물로 적정수준이라 보기 어렵다.

<표 10> 주민이 인식하는 농산물 마케팅 문제(중복 응답)

내 용	주						전체	
	트봉크롬		캄퐁스프		타케오			
	N	%	N	%	N	%	N	%
낮은 시장가격	111	73	83	58.5	95	67.9	289	66.6
운송수단의 부족	22	14.5	19	13.4	14	10	55	12.7
중간상인의 간섭	22	14.5	15	10.6	7	5	44	10.1
정보의 부족	15	9.9	12	8.5	12	8.6	39	9.0
적절한 시장의 부재	12	7.9	7	4.9	14	10	33	7.6
열악한 도로사정	20	13.2	5	3.5	0	0	25	5.8
열악한 시장 접근성	2	1.3	0	0	2	1.4	4	0.9
모름	14	9.2	32	22.5	15	10.7	61	14.1
특별한 이유 없음	2	1.3	1	0.7	0	0	3	0.7
계	152		142		140		434	

Q: 농산물 판매에 있어 주된 문제는 무엇인가?

출처: KOICA 캄보디아 농촌개발사업 기초선 조사 보고서(2015a)



<그림 8> 마을진입로(건기)

<그림 9> 마을진입로(우기)

*1년 중 절반인 우기에는 마을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림 9>는 중간상인이 작물을 운반하는 모습.

(3) 인적 자원의 부족

오늘날 캄보디아 농촌이 처해있는 인적 자원의 문제는 농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있는 인력의 부족과 경작 활동을 위한 노동력 부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우선 농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성 부재는 필연적으로 부족한 주민교육 및 기술보급 활동에서 비롯된다. 전통적인 농작 방식을 유지하던 대다수 농가가 급변하는 자본주의적 농업형태에 적응 및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신품종, 마케팅, 관련 문제 해결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 혹은 정보공유 활동이 필수적이지만 기초선 조사의 대상 지역인 3개 주 모두 신품종 재배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농가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그중 트봉크롬(9.5%)은 다른 2개 주와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앞서 제기했던 지역의 열악한 접근성과 직결되어, 수도에 집중된 정부 및 주요 기관들의 활동이 적게 영향을 미치며 같은 이유로 원조기관이 제공한 개발사업 혜택이 불평등하게 제공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²⁴⁾.

<표 11> 신품종 재배 교육을 받은 농가의 비율

사유	주						전체	
	트봉크롬		캄프스프		타케오		N	%
	N	%	N	%	N	%		
교육 받음	4	9.5	6	23.1	24	34.8	34	24.8
받지 못함	38	90.5	20	76.9	45	65.2	103	75.2
계	42	100	26	100	69	100	137	100

Q: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신품종 쌀에 대한 교육을 받아보셨습니까?

(농지를 보유하고, 쌀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 대상)

출처: KOICA 캄보디아 농촌개발사업 기초선 조사 보고서(2015a)

또한, 오늘날의 캄보디아는 높은 소득과 일자리를 찾아 도시와 해외로 이주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농촌 지역에는 노동력 부족의 문제가 점차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2014). CIPS(2013)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캄보디아 전체 도시이주자의 수는 19% 상승했다. 이

24) 캄프스프주의 사봉루(*Savong Leu*) 마을과 보레이럼(*Borey Rum*) 마을은 무려 1987년에 월드비전(World Vision)에서 종자돈(seed money)을 받고 시작한 미소금융 사업을 아직 유지하며 그 수익금을 마을 기금 마련에 사용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다.

러한 상황은 자연히 농촌 지역에 내려오던 전통적 협동노동을 약화한다. 연구지역인 3개 주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약 60%가 인구 이주 등의 이유로 이웃과 교환할 인력이 부족하여 협동노동의 문화가 약화되고 있다고 인식했다. 특히나 조사에 참여한 농가 중 30.9%가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거나 이주할 예정인 것으로 응답해 3개 주의 이촌 향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캄보디아의 이촌 향도 역시 농촌 지역과 도시지역의 임금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2013년에 발표된 CDRI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도 프놈펜 지역에 1인당 소득은 농촌 지역보다 약 1.5배가량 높으며 이러한 격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Tong et al, 2013). 이 때문에 프놈펜을 중심으로 대도시 지역으로 이주 빈도가 높으며, 실제로 기초선 조사결과 가족 구성원이 이미 이주했거나 이주할 예정인 농가의 3개 주 전체 평균 52.1%가 프놈펜이 목적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트봉크롬의 경우 이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캄퐁스프, 타케오에 비교해 다른 농촌 지역(29.5%), 태국(23.1%), 말레이시아(14.1%)로 이주 비율이 월등히 높다(<표 12> 참고). 이런 독특한 양상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아직은 별다른 시도조차 없는 상황이다. 다만 수도와 약한 접근성으로 인해 프놈펜으로 이주보다는 더욱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해외지역으로 이주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²⁵⁾, 특히 말레이시아로 높은 이주 비율은 설문에 참여한 참족이 문화적으로 유사한 이슬람국가로 이주를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설문의 결과를 일차적으로 추론한 결과에 불과하며, 정확한 요인확인을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재차 밝힌다. 마지막으로 트봉크롬이 타 농촌 지역으로 이주 비율이 높은 이유는 본 연구에 후반부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25) 주민 인터뷰 결과 경험적 인식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월 평균소득은 한국은 \$2000, 태국은 \$200, 말레이시아는 \$300이다. 캄보디아의 1인당 명목 GDP \$1,158.7이다(World Bank, 2015년 기준).

<표 12> 이주 한/할 농가의 목적지

사유	주						전체	
	트봉크뎀		캄퐁스프		타케오			
	N	%	N	%	N	%	N	%
프놈펜	20	25.6	44	66.7	49	67.1	113	52.1
다른 농촌 지역	23	29.5	7	10.6	12	16.4	42	19.4
태국	18	23.1	3	4.5	2	2.7	23	10.3
주 도시지역	5	6.4	7	10.6	5	6.8	17	7.8
말레이시아	11	14.1	2	3	4	5.5	17	7.8
한국	0	0	2	3	1	1.4	3	1.4
특정 목적지 없음	1	1.3	1	1.5	0	0	2	0.9
계	78	100	66	100	100	100	217	100

Q: 이주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족 구성원 중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거나 할 예정인 사람 있다고 답한 농가 대상)

출처: KOICA 캄보디아 농촌개발사업 기초선 조사 보고서(2015a)

(4) 부채의 증가 및 위기 관리체계의 부족

앞에서 제시된 여러 요인을 통해 알 수 있듯, 현재 캄보디아 농촌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농업으로 고소득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주민의 은행저축 및 조직의 기금조성이 부족하거나 없는 상태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예기치 못한 위기가 발생했거나, 생산량 증대를 위한 투자(예를 들어 농기구, 비료 등)가 필요할 경우 돈을 빌리는 빈도가 높다. 기초선 조사에 따르면 조사한 3개 주의 44% 주민이 농업생산량 증대(23%), 소득 증대(23%), 주택 수리(19%) 등을 이유로 대출을 지난해에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마을에는 각각 4~8개의 소액금융기구(Micro-Finance Institute, MFI)가 활동하는 데, 문제는 소액대출의 오남용으로 인해 높은 이자로 고통받는 농가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국가 자체의 마땅한 위기 관리수단이 없어 큰돈이 필요할 경우 주민들은 불가피하게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초선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지역의 지방공무원의 경우 MFI직원과 함께 마을을 돌며 사금융 대출을 장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기술했다(KOICA, 2015a)²⁶⁾. ADB(2012)는 오늘날 캄보디아 농가들이 대출이자의

26) 캄보디아의 경우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공무원을 타 기관에 파견 보내거나 혹은 협업하도록 하여, 임금을 일부 보조받는 경우가 많다.

누적을 막고자 재배한 농작물을 수확 즉시 혹은 때에 따라 수확도 되기 이전에 한꺼번에 판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로 인해 동시에 농산물들이 몰려들면서 시장가격을 하락시키고 있다.

<표 13> 2014년 돈을 빌린 경력이 있는 농가

사유	주						전체	
	트봉크뎀		캄퐁스프		타케오		N	%
	N	%	N	%	N	%		
빌립	71	27.4	113	55.4	129	50.6	313	43.6
안 빌립	188	72.6	91	44.6	126	49.4	405	56.4
계	259	100	204	100	255	100	718	100

Q: 지난 2014년에 돈을 빌린 경험이 있습니까?

출처: KOICA 캄보디아 농촌개발사업 기초선 조사 보고서(2015a)

2. 다양성과 능동성의 주체로서 농촌

앞 절에서 본 연구는 캄보디아 정부, KOICA 등이 진행한 연구를 중심으로 캄보디아 농촌의 로컬리티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캄보디아 농촌에는 최근 일정 수준의 생산량 및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여전히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내재하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인지해야 할 부분은 참고자료로 활용된 연구의 시행기관이 캄보디아 정부, KOICA 등의 공공기관으로, 앞 장에서 다룬 듯이 캄보디아 농촌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빈곤, 열악, 부족, 결핍 등)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대규모의 표본으로 진행된 해당 연구들이 높은 설명력을 지니는 것은 사실이나, 연구의 과정과 해석에 있어서 이들 기관이 지닌 표상이 재현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는 현재 캄보디아 농촌의 소득이 낮은 이유는 될 수 있으나, 그런데도 농촌이 유지되고 주민이 거주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서 제시한 공적인 표상과 일치하지 않는 농촌의 로컬리티적 특성을 추가로 발굴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캄보디아 농촌의 로컬리티를 규정하려 한다.

1) 트봉크뭉 농촌의 문화적 다양성

전체 국민의 90%가 크메르족으로 상좌부불교를 따른다는 수량적 조사결과로 인해, 캄보디아 특히 농촌이 문화적 다양성이 모자란 지역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나 캄보디아 정부가 크메르어와 불교를 각각 유일한 공용어와 국교로 공식적으로 지정함으로써, 다른 언어와 종교를 따르는 약 30여 개의 소수민족이 주변화(marginalization)되는 흐름이 매우 뚜렷하다(Bredenberg & Sovann, 2003; ESCUP, 2006). 오늘날 캄보디아 정부는 종교의 자유와 민족 간의 평등을 강조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염두 하지 않은 일률적 국정 운영을 고수해 왔는데, 이로 인해 정보 및 행정 능력이 약한 소수민족의 주변화가 더욱 심해지고, 크메르 사회로의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ESCUP & USAID, 2008). 이러한 상황에서도 소수민족 중 가장 큰 인구 규모를 갖는 참족은 민족적 지속가능성이 비교적 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연구대상 지역인 트봉크뭉은 캄보디아에서 참족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으나 농촌 지역의 경우 주민이 크메르족과 참족의 비율을 50대 50으로 볼 정도로 참족 거주인구가 많다. 이들은 각각 불교와 이슬람 그리고 크메르어와 참족어라는 다른 종교적·언어적 관습을 따르며 특별한 거주지 구분 없이 마을 간 혼재하여 살며 오랜 기간 갈등 없이 공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트봉크뭉은 종교 갈등의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 참고사례로 연구의 가치가 매우 높으나, 이러한 접근에 별다른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크메르-이슬람으로 칭해지는 참족(Bredenberg, 2003)은 민족의 유래를 앙코르제국에서 찾은 크메르족과는 달리 15세기 베트남 중부에서 번영한 참파 왕국(Champa Empire)에서 찾는다²⁷⁾. 이들의 종교관은 순수 이슬람보다는 오랜 기간을 거쳐 도착화된 참족 고유의 이슬람 형태를 보이는데, 이러한 특징은 마을 내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매일 사원에서 예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순수 이슬람과 달리, 참족의 경우 매주 금요일에만 집단체배를 하며, 이 특징으로 Friday Islam이라 칭해지기도 한다

27) 참족 중에서 참파왕국의 민족적 계승성을 강조하는 민족을 특별히 *Cham Jahed*라 칭한다 (Maunati & Sari, 2014).

(Maunati & Sari, 2014; 김권호 외 2017). 마을 이장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공지사항 전달 및 주요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데, 이는 평시에 집단예배를 하지 않는 불교 마을에 비해 공동체 활동에 유리한 점이다(김권호·정운관, 2017). 실제로 트봉크뭉 지역 크메르 마을 5곳과 참족 마을 5곳을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진행한 정운관(2018)은 이슬람에 기반을 둔 참족 공동체가 크메르 공동체보다 마을활동에 참여비율이 높다는 점을 계량적으로 증명했다.

참족의 오랜 토착화의 결과로 함유한 유동적인 이슬람 종교관은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마을 주민은 상호 간 문화를 존중할 경우 인근 마을의 불교 신자와 혼인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개종도 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²⁸⁾. 이와 동시에 이슬람 언어 및 전통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오전에 공교육과는 별개로 오후에 이슬람 학교(*pondok*)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결과 주민 대다수가 크메르어와 참족어(토착 이슬람어) 두 언어 사용이 가능하다. 라마단(*Ramadan*), 하지(*Haji*)²⁹⁾ 등의 이슬람 전통도 지키고 있다. 이처럼 토착 이슬람은 내부적으로 소수인 참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외부적으로 다른 종교의 이웃 마을과 원만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김권호·정운관, 2017).

이 같은 트봉크뭉 지역의 민족적, 종교적 다양성이 미친 영향은 여러 측면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 기초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봉크뭉 지역의 대출 이용자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트봉크뭉 27.4%, 캄퐁스프 55.4%, 타케오 50.6%). 이는 이자(리바, *riba*)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이 트봉크뭉 지역에 광범위하게 작용한 결과이다(<표 13> 참고). 하지만 이로 인해 급전이 필요한 경우 이웃 간 금전거래를 피하고 사금융기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향후 주민이 부채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다. 이 밖에도 앞서 <표 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적 예상과 달리 트봉크뭉 농촌이 캄퐁스프, 타케오보다 해외 이주 비율이 높다는 점 역시 종교적 배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족은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이슬람국가와의 강한 연계를 하고 있으며, 각 마을에는 이슬람 국가들의 지원으로 건설된 이슬람사원이 존재한다³⁰⁾. 이로 인해 참족 주민이

28) 참족 마을 위하아삼보의 마을개발위원회 인터뷰(2017.01)

29) 이 기간에 말레이시아 원조단체로부터 소 1마리를 기부받아, 이슬람 방식으로 도축한 후 축제를 지낸다.

30) 이러한 배경에는 크메르루주 시절 파괴된 이슬람 종교 시설들을 복구하기 위한 참족 자체적

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말레이시아로 이주를 선호함으로써, 가장 고립된 입지에도 불구하고 트봉크뭉의 해외 이주 비율이 높다. 마찬가지로 태국으로의 높은 이주 비율 역시 참족의 해외이주에 대한 반사효과가 크메르족에게 작용하여, 불교 국가인 태국으로 이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트봉크뭉 지역에는 민족과 종교를 기반으로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발달하였다. 잠재된 다양성은 상호작용을 통해 토착화되어 농촌의 생존전략으로 자리 잡았으며, 농촌 문화 전반에 걸쳐(예: 가족의 종류, 식문화, 마을 행사 등의 차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포함해서 트봉크뭉 그리고 캄보디아 농촌 전체가 지닌 다양성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며, 지역적 배경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되는 일반화된 정책은 오히려 지역의 문화를 파괴하고 공동체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림 10> 참족 주민회의(참위히아삼보 마을) <그림 11> 크메르족 주민회의(꿀 마을)

* 참족 여성의 경우 캄보디아 전통스카프인 끄러마(krama)를 히잡 대신 두른다.



<그림 12> 마을 내 이슬람사원(위히아삼보 마을) <그림 13> 마을 내 불교사원(쫁오 마을)

인 수요와 함께 캄보디아 내 이슬람 신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이슬람국가의 수요가 동시에 작용한다(Muslim Aid 웹사이트 참고: <http://muslimaidcambodia.org>).



<그림 14> 마을 중심 거리모습(참죽, 삼보 마을) <그림 15> 마을청소 캠페인(크메르족, 리비아또 마을)

2) 능동적 주체로서 캄보디아 농촌

개발도상국의 농촌은 국가 혹은 세계 규모에서 일어나는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로 보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농촌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주체는 분명 농촌과 주민들이며, 이들은 자신들이 기존에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구조적 변화에 반발, 순응, 적응함을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던 트봉크뭉 지역의 높은 카사바, 고무 재배 비율 역시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한 농촌의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쌀이 주식인 식문화지만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트봉크뭉 지역 내 카사바 재배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는 최근에 도입된 데 비해 트봉크뭉의 카사바 재배의 역사는 약 20년에 이른다(KOICA, 2015a). 이 영향으로 현재의 농작 방식은 공동 노동³¹⁾에서 핸드트랙터에 의한 부분적 기계화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트봉크뭉 내의 크메르족 마을인 꼴(*Koul*)에서는 2016년부터 1년 남짓 동안 마을 내 보유한 핸드트랙터의 수가 8대에서 25대로 급증했다. 타 농촌에서도 유사한 상승세가 나타나는데, 이는 부족한 자본 능력을 고려해봤을 때, 캄보디아의 농업 환경 변화에 농촌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슬람의 도착화된 유동적 종교관은 이 부분에서도 매우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앞서 언급한 듯 대출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은 주민의 과도한 금전거래를 제약하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사금융기관으로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다.

31) 우리나라 품앗이와 유사한 농업노동력 공유 풍습인 *Vedai*(‘손을 바꾼다’라는 의미)가 있으나, 현재 미미한 수준으로 보전되고 있다(김권호·정운관, 2017).

이에 참족 마을인 위히아삼보는 주민이 사금융기관의 높은 이자로 고통받자, 마을 회의를 통해 KOICA의 원조를 받아 낮은 이율의 미소금융 사업을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분명 이슬람율법에 어긋나는 행위이나,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다음 해에는 위히아삼보에 영향을 받은 이웃 참족 마을 역시 마을 미소금융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슬람사원을 거치는 유사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³²⁾. 이는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촌의 인식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KOICA의 기초선 조사를 포함한 캄보디아 국내외의 많은 연구가, 캄보디아 공동체에 사례분석을 통해 농촌에는 주민 간의 협동과 신뢰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크메르루주 시기의 막대한 희생에서 비롯된 사회적 자본의 파괴에서 찾았다(Vicheth, 2012). 이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현자인 연구자가 진행한 여러 연구가 캄보디아의 사회적 자본이 완전히 파괴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내재하여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Krishnamurthy, 1999; Kim, 2001, Pellini, 2005; Grahn, 2006; 정운관, 2018). 현재 트봉크롬 지역의 대부분 마을에는 큰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한 장례회, 결혼회³³⁾ 정도만 보유하며 그 외 마을조직(부녀회, 원로회, 청년회 등)은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로 인해 농촌 주민 간 협동의식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평가하나, 캄보디아의 문화적 특성상 종교의 역할을 예외로 하고 분석할 수 없다. 마을마다 자리 잡은 불교, 이슬람 사원은 전통사회의 중심지이며, 연대감과 종교의식의 기반이 된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장소였다. 불교사원은 환경 의식 함양, 농산물 묘목 분배, 지역 주민과 중앙 정부 간 회의 주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었다(Ebihara, 1973; Ebihara 외 1994; Grahn, 2006; 정운관, 2018). 특히나 종교시설은 지역 내 노인을 보살피거나, 빈민을 사원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의 복지를 담당하는 역할을 해왔다. 트봉크롬의 이슬람 마을의 경우 보편화한 기부문화의 하나로 매년 주민 중 쌀을 960kg(80tang, 1tang=12kg) 이상 수확한 가구는 이 중 10%를 가난한 가구에 기부하는 전통

32) KOICA의 새마을운동 기반 캄보디아 농촌공동체 종합개발사업(2015-2018) 사업내용임.

33) 일종의 계 문화로 주기적으로 매월 약 0.5달러 정도씩을 10명 내외의 회원들로부터 걷어 집안 행사의 종갓돈으로 활용함.

이 있다. 반대로 크메르 마을의 경우, 마을주민들로부터 기부를 받아 빈곤한 독거노인에게 기부하는 문화가 있다. 마을 원로가 회의를 주재하여 수혜자를 선정하는데, 이때 부양가족, 보유재산 등을 고려하며 선정된 수혜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원한다. 주민들은 이러한 상부상조 문화의 기반에는 불교의 상호존중을 권하고 죄악을 금하는 가르침이 있다고 설명했다(김권호·정운관, 2017). 이 밖에도 각 마을에는 저마다 다른 수호신(*neak ta*)이 있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으며, 마을 내에 있는 불교, 이슬람 사원에서는 매년 정기적인 종교행사를 거행함으로써 마을의 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물론 향후 농촌이 마을의 본연적인 능동성과 협동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마을의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문화를 주민 자생조직으로 점차적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종교 중심의 공동문화는 종교 율법이나 미신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주민활동과 그 성과를 제약하고 자칫 문화와 관습을 교조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캄보디아 농촌은 아직까지 주목받지 못했을 뿐 자신 고유한 방식으로 주민 협동의식과 공동체를 보전해 왔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로써 향후 성급하고 불완전하게 주민조직을 구성하거나 공동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내재된 문화와 방식을 활용하여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을주민 인터뷰: “이것이 미신인 것을 알지만, 남녀노소가 모두 모여 전통 행사를 구성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특별한 행사에 한데 모여, 얘기하고, 축하하면서 우리의 동질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³⁴⁾

3. 소 결: 구조적 빈곤과 잠재적 가능성의 캄보디아 트봉크뎀 농촌

이 장에서는 할파크리의 이론에 따라, 농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생산 및 소비 활동과 이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여 캄보디아 트봉크뎀의 농촌 로컬리티를 알아보았다. 더욱 객관적인 자료 해석을 위해 캄보디아 농촌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연구들과 KOICA가 트봉크뎀, 캄퐁스프, 타케오 3개 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34) KOICA(2016)의 기초선 조사 보고서에서 주민 인터뷰 발췌함.

기초선 조사 자료를 활용했다. 그 결과 현재 캄보디아 농촌은 분절된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구조적 빈곤에 처해있다는 해석을 내릴 수 있다. 주민의 토지보유율, 토지 생산성, 시장 및 정보 접근성, 인력의 전문성, 노동력 등 농촌의 지표 전반에서 부정적인 양상이 나타났다. 각 요인의 영향으로 주민들의 소득은 생산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 부채의 늪에 빠질 위험이 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여러 차례 다뤘듯이, 활용한 선행연구의 기반에는 조사기관의 목적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었으며, 자본주의 메커니즘 한 측면만으로는 농촌이 보유한 경제적 상황 외적인 특성을 포용할 수 없다. 특히 전통적 공동체의 경우 열악한 자본과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오랜 기간 누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공동체적 자원관리의 원리를 마련한 경우가 많다(Ostrom, 2010; 김권호·권상철, 2016). 트봉크뎀의 농촌에서 역시 이러한 암묵지(暗默知, tacit knowledge)가 요소요소에서 드러났다. 마을마다 존재하는 종교시설은 부족한 농촌 주민조직을 보완했으며, 정부 행정력이 결핍된 분야 보완하여 복지시설의 역할을 했다. 종교에 집중된 권한과 역할로 인해 이종교간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높으나, 오히려 상황에 부합하는 유동적 종교관으로 내부적으로 소속원의 정체성을 높이고, 외부적으로 협상력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특히, 현지화된 이슬람 종교관은 이슬람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달리 종교적 이상과 현실 상황 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였으며, 현지화된 종교 관습(예: 모스크에서 주 1회 집단예배)은 오히려 다수인 불교 마을보다 협동 활동에 더욱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듯 농촌은 전통적 가치의 보전과 변화된 사회에 생존하기 위한 주체로서 노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늘날 개발도상국 농촌에서 일어나는 경제·사회적 변화를 외부적 압력에 의한 수동적 반응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이다.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과도한 산업화와 시장주의가 만든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자원, 공동체 문화, 자급적 삶, 협동조합 등 대안적 개념들이 제시되고 있으나(Mies & Veronika, 2013; 김권호·권상철, 2016), 정작 이러한 대안이 만연한 개발도상국에서는 무시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구조적인 빈곤에 처해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역량이 잠재된 농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V. 캄보디아 트봉크뎀 농촌 주민의 삶

일상 속 트봉크뎀 농촌은 매우 평온하다. 캄보디아 농촌은 대외적으로 ‘겉으로 유순하지만, 내면은 단편화되어 있다(docile but fragmented)’ 라고 묘사될 정도로(Ojendal, 2006),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긴장이 외부인에게 표출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처음 보는 외부인이 마을로 들어와 현지 조사를 할 때도 매우 친절하게 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캄보디아 연구자들은 그 원인을 역사의 영향으로 내재한 문화에서 찾았다. 이들은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지만, 동시에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조심스러운 태도가 있는 것이 자신들의 문화라 설명한다(Ovesen, 1996; Kim, 2001). 이렇듯 외부인에 의해 관찰된 캄보디아 농촌의 성향은, 물론 틀린 것은 아니나, 이면에는 다른 긴장 관계가 잠재되어 있기 쉽다.

농촌 공간 삼중모델을 주창한 할파크리는 농촌 주민의 삶은 본연적으로 비일관적이라고 봤다. 같은 상황에 부딪치거나 같은 인식을 하더라도 그로 인한 개인적 반응은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주민 각각의 행동을 세세히 파악해야 함을 의미하기보다는, 공간 내에는 다른 행동과 생각을 하는 주체가 필연적으로 존재하며, 그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Halfacree, 1996). 캄보디아 농촌 역시 마찬가지다. 농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정책이 시행되면 누군가는 재빨리 이해하고, 적응하여, 좋은 성과를 보이겠지만, 이와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 수가 적을지라도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 때문에 이 장에서는 농촌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접근을 위해, 캄보디아 트봉크뎀 농촌 주민의 삶의 다양성을 높이는 요인이 무엇이며, 농촌을 성급하게 일반화하여 접근하기 곤란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려 한다. 이 장의 기반이 된 내러티브는 약 1년간의 상호교류와 참여관찰을 통해 구성되었음을 다시 한 번 알린다.

1. 트봉크뭉 농촌 주민의 필연적 인식 차이

1) 공공기관 및 주민 상호간의 신뢰도 차이

국가, 지방정부 혹은 마을 자체에 대해 주민이 갖는 신뢰도는 마을의 소속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이나 향후 농촌에서 진행되는 공동 활동에 대한 참여도에 직결되며, 나아가 농촌 자체가 가지는 발전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앞부분에서 언급한 듯 캄보디아는 독립 이래 혼란의 현대사를 겪어 왔으며, 특히 1970년대 말에 겪은 크메르루주의 통치 시기는 캄보디아가 보던 전통과 문화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수많은 자원을 파괴했다.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트봉크뭉 역시 예외가 아니다. 약 200만 명의 희생자를 만든 격변의 시기의 생존자들은 여전히 마을의 핵심 연령대로 활동하고 있다. 현 정권이 크메르루주 격퇴의 업적을 공공연히 홍보하고 있음에도, 농촌에서는 함부로 당시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농촌 내면에는 서로가 피해자와 가해자로 얽혀있지만, 주민들은 혼란의 시대의 잘잘못을 내면에 묻고, 시간이 흘러 역사의 평가와 해석을 받는 것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개개인이 갖는 신뢰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Vicheth(2012)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캄보디아 농촌공동체는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신뢰도가 재편되고 있다. 중앙정부, 지방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신뢰가 낮고,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의 신뢰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는 1970년대와 80년대 발생한 국가적 혼란,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시 따르다 발생한 비극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현재 트봉크뭉 지역 대부분의 농촌이 크메르루주시기인 1975년에 사라졌다가 1979년 재건되었으며, 이후에도 정부의 개발정책에 따라 강제 이주시킨 비율이 높았다³⁵⁾.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민들이 모여 마을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황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까지 완전히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늘날의 캄보디아 주민과 사회적 권위자와의 관계는 ‘존중(Korob), 존경(Kaud), 두려움

35) KOICA(2016)의 기초선 조사에 따르면 마을 거주 경력이 10년 이내인 경우가 트봉크뭉(약 26.9%)으로 캄퐁스프(11.3%), 타케오(12.2%)보다 월등히 높았다.

(*Klach*)' 이라는 세 단어로 정의되며, 최근에는 두려움(*Klach*)의 요소가 약해졌다고 설명된다(Ojendal & Sedara, 2006). 이는 기존에 마을 내 지도자, 공무원 등과 주민의 관계가 매우 수직적으로 구성되었음을 의미하며(Grahn, 2006), 이 때문에 개인적인 불만과 이견이 발생하더라도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최근에는 크메르루주의 트라우마와 별개로, 장기 집권하는 현 정부에 대한 지역별, 세대별 차이가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the Diplomat 기사, 2017.05.19). 이에 따라 야권을 지지하는 경우 지역 활동에서 제약이 크며, 특히나 마을지도자가 야권지지자면 정책 혜택에 있어 차등을 받거나, 발언권이 약해 질 수 있다(Inada, 2013). 다만 본 연구의 전반부에서 언급했듯 트봉크뎀은 주민 다수가 여권을 지지하는 지역이기에 집단으로서 지지성향에 의해 발생하는 차별은 없으나, 마을 내부에서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나 중앙정부가 소수민족을 차별하고, 개발정책에 의해 농촌 주민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최근에 매우 격렬히 제기되고 있다(Pen & Chea, 2014). 트봉크뎀의 참족 마을인 트로페앙 프롤릿(*Tropeang Prolit*)은 2000년대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를 기록했는데, 이는 캄보디아 중앙정부와 대기업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에 의해 상당수 주민이 생활공간을 잃고 강제이주 되어 들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수민족의 거주비율이 높은 캄보디아 북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사업에 의한 강제이주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트로페앙 프롤릿 역시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인구증가가 발생하였고, 농지 부족, 생활기반 부족 등 인구압력에 의해 발생한 문제들로 주민들이 다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KOICA, 2015a). 이렇듯 캄보디아 농촌 내부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긴장 관계가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농촌의 공동 활동 특히 정부 주도하에 농촌 개발 활동에 대한 소극적 참여 혹은 불만을 표하는 주민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현시점에서 캄보디아 농촌의 일괄적인 반응과 매우 높은 수준의 일체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6> 마을이장 집 앞에 설치된 여당 표지판(트로페앙 프롤릿 마을)

* 트봉크뭉 대부분의 마을지도자 집에는 여당(PPP) 표지판이 세워있으며, 이는 해당 마을이 여당을 지지함을 공표한다. 하지만 이것이 정부에 반감이 있는 주민이 존재함을 부인할 수는 없다.

2) 빈곤에 대한 인식 차이

앞서 언급한 듯, 트봉크뭉 지역의 1인당 하루 평균 소득은 1.38달러 정도로 추정되며, 캄보디아의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저조한 수치이다. KOICA의 기초선 조사에 따르면 트봉크뭉 가구의 약 57%만이 공용 전기를 조명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며(나머지는 배터리, 발전기, 장작 등을 사용), 약 90%가 여전히 장작불로 요리한다. 그 밖에 의료, 교육, 생활 인프라 역시 필연적으로 매우 열악한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적 수치가 일괄적으로 주민의 빈곤 의식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2011년 CSES의 캄보디아 전체 농촌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판매 가능할 정도의 수확을 위해서는 가구당 1ha 이상의 토지가 필요하나, 0.5~1ha 사이의 토지를 보유할 경우 자급자족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CSES, 2014). 기초선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트봉크뭉 농가가 평균적으로 활용하는 토지의 규모는 3.09ha(농지 0.8ha, 과수(혹은 고무) 2.29ha, 사업용 0.07ha, 주거용 0.11ha, 기타 0.09)이다. 이는 CSES가 추정한 전체 농촌 평균 경작 규모인 1.2~1.4ha를 웃도는 수치이다. 또한, 열대기후로 인해 각 가정의 정원에서는 채소, 과일 등을 소규모로 연중 재배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농가가 육류소비를 위해 가금류(닭, 오리 등)를 키우고 있다(소, 돼지 등은 판매용으로 키움). 따라서 자급자족의 비율이 높아 굳이 많은 소득이 필요 없으며, 이웃

과의 공생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농촌가구에 미비된 여러 제품과 인프라 역시 존재만 알고 있을 뿐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은 기초선 조사에 참여했던 트봉크롬의 10개 마을 중 8개 마을이 자기 마을을 중간소득(middle income level)이라 인식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GDP, GNI 등의 경제력 분석은 공유자원, 공동체 경제, 자급자족 등 전통적 경제활동에 대해 고려가 충분치 않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제적으로 계량된 수치가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정확히 반영하기가 힘들다(Mies, 2013).

이렇듯 오늘날 캄보디아 농촌에는 빈곤, 부족 등 부정적인 해석이 일반적이지만, 이에 대한 주민의 반응 필연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객관적인 수치가 매우 부정적인 양상으로 해석된다 하더라도, 이를 인지하는 주민은 개발이나 소득 증대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낄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무관심할 수도 있다. 이는 앞으로 개발도상국 농촌개발의 우선순위와 방향성을 설정함을 위해서 반드시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



<그림 17> 일반적 캄보디아 농가



<그림 18> 요리하는 캄보디아 여성



<그림 19> 캄보디아 농가 텃밭



<그림 20> 참족마을 일반적 한상 차림

3) 주민의 대응 및 수행 능력의 차이

아무리 훌륭한 농촌 개발정책이 계획되고, 농촌에 유리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농촌을 구성하는 지도자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역량 차이가 크면 개발의 혜택은 농촌 전반으로 뻗치지 못하고, 소수에게만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트봉크똘 지역은 마을 간 문화·역사적 배경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더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참족 마을의 경우, 공식 언어인 크메르어와 다른 참족어를 사용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Brendenber & Sovann(2003)가 참족 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표본 89%는 크메르어가 아닌 참족어를 사용하기를 선호하며, 100%가 자신들의 문화를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언어적 차이는 트봉크똘에서도 더욱 내지로 들어갈수록 심해진다. 참족 마을 트로페앙 프롤릿은 트봉크똘을 가로지르는 7번 국도로부터 차량으로 두 시간가량 들어가야 하는 고립된 지역으로, 해당마을의 노년층과 여성층 대다수가 크메르어를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폐쇄적 공동체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이 파견되어 교육 활동을 진행하더라도 의미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때에 따라 크메르어 구사가 가능한 마을 이장이 통역하는 일이 많아, 동일한 활동을 진행하더라도 타 마을보다 효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 혹은 해외 원조 기관이 수행하는 농촌개발 사업이 공식 언어인 크메르어로 이루어진다. 농촌 및 주민 각각의 정보 습득과 해석 능력, 그리고 실질적인 농촌개발 활동 실행 능력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민족적 배경뿐만 아닌 주민의 직업적 배경 역시 농촌의 공동 활동에 대한 주민의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트봉크똘 농촌은 캄보디아의 여타 농촌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 수료자의 비율이 매우 낮으며, 주로 농업에 종사한다. 이러한 배경은 트봉크똘 인적자원의 역량을 제한하나, 캄보디아 농촌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그리 특별한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트봉크똘의 경우 타 농촌보다 고무 플랜테이션이 광범위하게 발달했으며, 이에 따라 고무농장 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주민 인터뷰에 따르면 트봉크똘의 크메르족 마을인 꼴의 경우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약 65%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고무플랜테이션 관

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 고무채취 노동자의 경우 일과 중 농장 체류 시간이 매우 길어³⁶⁾, 마을 공동 활동이나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가 힘들다. 이들 고무채취 노동자의 경우 마을에서 수행하는 사업, 공동체 활동 등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으며, 꿀의 이장은 마을에 협동 노동이 필요할 시 매우 큰 제약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농촌 지역에 정책과 사회현상이 작용하더라도 개인의 역량과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주민 각각의 관심 정도와 대응 활동은 다르게 나타나며, 또 대응 활동으로 인한 성과물 역시 역량에 따라 차이가 클 수 있다. 실례로 참죽 마을인 위히아삼보 주민의 인터뷰에 따르면, 2015년 마을 주민 중 1명이 소득증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양계장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 역량 및 운영 능력의 부족으로 다수의 닭을 잃고 사업에 실패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는 주민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역량이 부족했던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농촌의 로컬리티로 언급했듯이, 트봉크뭉 지역은 열악한 접근성에 의해 그동안 정부 정책이나 해외 국가의 원조 활동에 혜택을 차등적으로 받아왔으며, 이에 따른 농촌개발 사업의 경력이나 역량 강화 활동의 경험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2016년 조사 결과 비교군 중에 하나인 캉프스프주의 사봉루(*Savong Leu*) 마을과 보레이럼(*Borey Rum*) 마을은 무려 1987년에 월드비전(World Vision)에서 종잣돈(seed money)을 받고 시작한 미소금융 사업을 아직 유지하며 그 수익금을 마을 기금 마련에 사용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다. 다른 캉프스프와 타케오의 마을에도 해외 원조로서 가축은행, 미소금융 사업, 인프라 강화, 역량강화 사업 등이 제공되었으나, 트봉크뭉의 10개 마을에는 해외 원조를 받은 경험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소수민족인 참죽 마을에만 국한되어 이슬람 국가로부터 종교적 지원이 제공됐다.

이렇듯 주민 간 그리고 마을 간 역량 차는 성과의 차이로 이어지며 필연적으로 농촌 지역의 빈부격차로 일으킨다. Tong et al(2013)의 연구의 따르면 2004년 당시 농촌 지역의 상위 20%와 하위 20%의 1인당 소득 격차는 약 2.8

36) 농장노동자 근무시간- 1월~3월: 오전 4시~ 오전 8시(수액채취), 오후 3시~오후 6시(마을 복귀 및 저녁 식사) 이후 고무 농장에서 숙박(수액, 고무 기름 도난 방지), 4월~11월: 오전 3시~ 오후 4시(고무농장 근무) 이후 저녁에 개인 정비 시간(김권호·정운관, 2017).

배 정도였으나, 이후 2012년까지 경제 성장의 혜택이 불균형적으로 분배되면서 소득 격차는 더 커졌으며, 캄보디아 전체의 소득 격차보다 농촌 지역의 소득 격차 수준이 훨씬 심각하다는 결과를 제기했다. 이러한 소득격차의 심화는 주민들의 농촌 환경의 변화에 대한 비일관적 대응 결과이며, 또다시 주민 간 불일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2. 농촌 주민의 사업 우선순위의 차이³⁷⁾

트봉크롬 농촌 주민의 분열된 생활과 인식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농촌주민이 생각하는 ‘마을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개발 활동은 무엇인가?’ 를 확인하기 위해 AHP 분석을 진행했다. 조사의 대상이 된 위히아삼보 마을과 꼴 마을은 서로 인접하고 있는 마을로 각각 참족(이슬람)과 크메르족(불교)이라는 민족(종교)적 차이만을 제외하고는 규모, 경제 수준, 입지 등 대부분 요소에서 거의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그 때문에 이 절에서는 주민 개개인이 지닌 인식과 행동을 세세히 파악하기보다는 마을이 함유한 특징이 실제 주민에게 작용하여 주목할 만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확인하려 한다. 이를 위해 주민 각각의 분석결과가 아닌 마을간 평균치를 활용하여 비교분석을 진행했다.

1) 주변 환경 속 주민의 인식과 선택

AHP를 활용한 각 마을개발위원회(VDC)의 우선순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14>, <표 15>와 같다. 흥미로운 점은 두 마을의 사업선호도는 다소 차이를 보이나, 사업범주별 우선순위는 거의 유사하다는 사실이다. 분석결과 두 마을은 세 가지 대범주 중 ‘소득창출’ 사업을 가장 선호하며, 이를 위한 하위 사업으로 ‘기술교육’ 과 ‘농산물개발 및 마케팅’ 의 선호도가 높았고 ‘미소금융’ 이 뒤를 따랐다. 이는 앞서 농촌 로컬리티를 통해 살펴본, 농촌 지역의 열악한 생산 인프라가 작용한 결과이다. 특히 이슬람 마을인 위히아삼보 역시 미소금융 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은 여러 차례 언급한 토착화 된 종교관이 반영됐음

37) 이 분석의 결과는 김권호 외(2017)의 연구에 활용되었음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를 포함해 많은 외부 기구가 강조하고 있는 ‘농업생산성 향상’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선호도를 보였는데, 이를 통해 외부의 시선과 내부의 인식 간에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생활환경개선’의 경우 두 마을 모두 ‘교육인프라 개선’과 ‘건강 및 보건환경 개선’을 다른 두 사업보다 크게 선호하는 것이 나타났다. 하지만, ‘정신계몽 및 역량 강화’에서는 두 마을 간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공동문화의 보전이 약한 크메르 마을인 풀이 협동 정신 강화를 위해 ‘주민 정신계발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언급한 듯 토착화된 참족의 유동적 종교관은 불교보다 공동 활동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요소를 보유하며, 이에 따라 참족 마을이 크메르족 마을 보다 공동 활동에 참여율이 높음이 통계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정운관, 2018). 이로 인해 종합순위 상위 3개 사업이 모두 소득창출에서 선정된 위히아삼보와 달리, 풀은 근소한 차이로 주민 정신계발교육이 소득창출사업을 제치고 수위를 차지했다. 반대로, 두 마을 모두 ‘가정생활환경 개선’과 ‘마을 공동인프라 개선’ 사업의 선호도가 낮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주민의 생활·생산 환경의 열악성에 대한 인식이, 예상만큼 높지 않을 수 있음을 반증하기 때문이다(김권호·정운관, 2017).

<표 14> 위히아삼보의 사업 선호도 및 우선순위

대범주 선호도	순위	하위 범주	선호도		종합 순위
			기본 값 (순위)	조정치 ³⁸⁾	
소득창출 0.699	1	농업생산성 향상	0.119 (4)	0.091	4
		미소금융	0.138 (3)	0.106	3
		가축은행	0.099 (5)	0.076	5
		농산물 개발 및 마케팅 개선	0.265 (2)	0.204	2
		기술교육	0.379 (1)	0.291	1
생활환경개선 0.153	2	가정생활환경 개선	0.129 (4)	0.017	12
		교육인프라 개선	0.388 (1)	0.052	6
		마을 공동 인프라 개선	0.174 (3)	0.023	11
		건강 및 보건 환경 개선	0.309 (2)	0.042	8
정신계몽 및 역량강화 0.148	3	주민 정신계발 교육	0.262 (2)	0.027	9
		주민 조직 및 조합 구성	0.262 (2)	0.025	10
		사업 및 조직운영 교육	0.476 (1)	0.046	7

* CR: 대범주: 0.01, 소득창출: 0.02, 생활환경개선: 0.03, 정신계몽 및 역량강화: 0.01
출처: 김권호·정운관(2017)

<표 15> 꼴의 사업 선호도 및 우선순위

대범주 중요도	순 위	하위 범주	중요도		종합 순위
			기본 값 (순위)	조정치	
소득창출 0.391	1	농업생산성 향상	0.190 (4)	0.092	6
		미소금융	0.219 (3)	0.106	4
		가축은행	0.120 (5)	0.058	9
		농산물 개발 및 마케팅 개선	0.238 (1)	0.116	2
		기술교육	0.233 (2)	0.113	3
생활환경개선 0.244	3	가정생활환경 개선	0.195 (4)	0.047	12
		교육인프라 개선	0.233 (2)	0.054	10
		마을 공동 인프라 개선	0.196 (3)	0.048	11
		건강 및 보건 환경 개선	0.387 (1)	0.094	5
정신계몽 및 역량강화 0.365	2	주민 정신계몽 교육	0.430 (1)	0.117	1
		주민 조직 및 조합 구성	0.286 (2)	0.078	7
		사업 및 조직운영 교육	0.284 (3)	0.077	8

* CR: 대범주: 0.05, 소득창출: 0.04, 생활환경개선: 0.04, 정신계몽 및 역량강화: 0.01
출처: 김권호·정운관(2017)

3. 소결: 본연적으로 비일관적인 캄보디아 트봉크뭉 농촌

할파크리는 농촌 공간의 삼중모델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은 본연적으로 분열되어 있다고 주장했으며, 오늘날 농촌 주민의 특성을 단순화하려는 접근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와 유사하게 오늘날의 캄보디아 농촌 역시 주민 각각이 보유하고 있는 성향과 역량의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편향적으로 농촌을 다루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순응적이거나 수동적인 농촌 주민은 외부기관들이 제공하는 논의와 해석에 공감하고, 이들의 계획에 따라 행동한다. 하지만 오늘날 캄보디아 트봉크뭉에는 여러 변수가 존재하며, 그 영향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농촌 주민의 행동과 인식 역시 같지 않게 나타난다. 현대사의 비극이었던 킬링필드 시기는 캄보디아 농촌 사회를 개인적, 비공식적 네트워크 중심으로 뭉치게 했으며, 상대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렸다. 이는 오늘날 농촌 주민이 외부압력에 마냥 동의하고 따르지는 않을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유지해온 이들의 생활방식으로 주민들은 현재 상황의 열악함이나 개발의 필요성을 외부의 인식만큼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거나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경

38) 각 하위범주별 대안 수가 다르므로, 전체 순위 비교를 위한 추가보정이 필요하다.
조정치=결정 값(=기본 값*하위범주의 대안의 수)/전체 결정 값의 합

우가 많다. 이는 위히아삼보와 꼴 두 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AHP 분석을 통해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두 마을은 트봉크뭉 농촌 전반이 공유하는 특성에 따라 전반적으로 유사하지만, 각자의 보유한 특성에 의해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는 사업 우선순위를 보였다. 특히 일부 사업의 농촌 내부와 외부의 인식 사이에 격차가 컸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만약 모든 주민이 유사한 우선순위를 공유하게 된다 하더라도 주민이 각자의 민족, 직업, 교육, 가정환경 등에 의해 저마다 다른 역량을 함유한 상황에서 같은 혜택을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회 변화로 인해 현재 캄보디아 농촌의 주민 간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Tong, 2013). 이렇듯 농촌에 존재하는 다양한 요인과 변수로 인해 주민의 삶은 본연적으로 단편화되어 있다. 이를 무시하는 획일적인 접근은 잠재적인 갈등요인을 만들어 내거나 효과의 범위가 소수에게 한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의 트봉크뭉 농촌에 대한 인식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V. 결론: 캄보디아 트봉크뭉의 종합적 농촌 공간

1. 종합적 농촌 공간으로서 캄보디아 트봉크뭉 농촌

본 연구의 목적은 할파크리의 농촌 공간 삼중모델을 기반으로 캄보디아 트봉크뭉 농촌 지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은 장기간의 참여관찰을 기반으로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 분석, 통계 분석, 설문조사 등의 출처가 다양한 정보를 조합하며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캄보디아 트봉크뭉 농촌의 사회, 역사, 경제, 정치,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배경을 포용하고자 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캄보디아 트봉크뭉의 단면과 종합적 농촌 공간:
단일한 상상에 대한 농촌 공간 각 측면의 반응

구 분	종합적 농촌 공간		
	농촌에 대한 공식적 표상	농촌 로컬리티	농촌 주민의 삶
외부 (일치의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완화를 위한 필요성 • 개발과 극복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삶의 질 - 불안정한 농촌 경제 - 외부원조에 대한 의존 • 취약한 농촌 공동체 • 원조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소득과 열악한 생산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소유권, 생산성 문제 - 농업 투자의 부족 - 마케팅 기반의 부족 - 인적 자원의 부족 - 부채증가 및 위기 관리체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응적, 수동적 농촌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 극복의 절박함 - 외부조건에 무조건적 수용
내부 (불일치의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민족의 기반 • 유력 정치인의 고향 • 친 정부 성향의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의 문화적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적, 종교적 다양성 - 토착화된 고유한 종교관 • 농촌의 능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에 대응하는 농촌 - 종교시설의 역할 - 생존을 위한 공동체적 암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에 대한 신뢰도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기관에 대한 불신 - 개인적 비공식적 네트워크 • 빈곤에 대한 인식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자족의 생활 방식 - 필요성의 인식 차이 • 주민의 대응 및 능력의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적 배경에 따른 차이 - 직업적 배경에 따른 차이 - 역량에 따른 차이 • 주민의 우선순위의 차이
소 결	도움이 필요한 순응적 존재로서 농촌 공간	구조적 빈곤과 잠재적 가능성의 농촌 공간	본연적으로 비일관적인 농촌 공간

대외적으로 캄보디아 농촌만이 아닌 국가 전반에 대한 외부의 상상은 일반적으로 빈곤, 열악, 무능, 불신, 수동, 순응 등의 부정적인 개념과 연결이 된다. 개발도상국 농촌에 대한 논의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오늘날,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개도국 정부와 국민에게 불가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캄보디아 정부는 농촌 지역의 취약성을 강조하며, 농촌의 전반을 아우르는 제약을 극복 및 개발할 의지를 표했으며, 해외 원조기관 역시 정부 의견에 동의하며 각자의 역할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공식적 표상은 캄보디아 농촌 전반에 걸쳐 자본주의적 생산기반이 실제로 매우 열악하므로 발생했으며, 이러한 농촌로컬리티의 극복을 위해 농촌개발의 필요성이 재차 공식적으로 강조되었다. 이 과정에 농촌 주민은 순응적이거나 수동적으로 간주하며 외부정세의 변화와 외부기관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존재로 일반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농촌의 내면에는 단일한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 다양성, 분절성, 긴장 관계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성급한 일반화를 피해야 한다. 외부인의 단편적인 시선만으로는 트봉크뎀 지역이 소수 민족의 삶의 기반이자, 정치적으로 민감한 긴장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없다. 또한, 농촌에 내재하여 있는 농촌의 문화적 다양성과 암묵지는 오랜 생존과 적응의 결과로서 부족한 자본주의적 생산 인프라를 보완하는 역할을 했으며, 나아가 이들이 중요시하는 전통적 가치를 보존했다. 그 과정에서 농촌은 시대변화 속에 단순히 수동적으로 휩쓸리지만 한 것이 아닌 나름의 전략과 방법으로 대응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반적 인식과 괴리는 기본적으로 농촌 주민 자체가 획일화되지 않은 분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농촌 주민은 개인의 가치관, 역량, 인식, 배경, 직업 등에 따라 같은 상황에 처해있어도 서로 다르게 대응하며 다른 결과를 얻어 낸다. 특히 현대사의 혼란은 주민의 삶의 분절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곧 외부인 혹은 외부기관의 기대나 예상과는 상이한 행동을 하는 주민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캄보디아 주민에게 오랜 기간 내재한 조심성의 문화는 이러한 긴장관계를 쉽사리 드러내지 않기에, 외부시선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듯 캄보디아 트봉크뎀의 삼중모델을 구성하는 각축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외부의 상상과 일치하는 공간과 내재하여 확인하기 힘든 불일치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할파크리가 주장했듯 각 축은 서로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닌, 상호관계를 통해 공간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킨다. 각 축은 때에 따라 서로 보완하기도, 마찰을 일으키기도, 또는 중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날의 캄보디아 농촌은 외부 권력기관이 농촌의 열악한 생산기반(농촌 로컬리티)에 기반을 두어 만들어낸 빈곤과 취약성의 표상을 통해 개발과 원조의 필요성을 알리고, 농촌 주민의 삶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형국이다. 다만, 표면에 잘 드러나지 않아 무시되기 쉬운 불일치의 공간은 정부, 지역, 주민의 순으로 갈수록 더 커지기에, 오늘날 과소화와 단순화 된 농촌 주민 사회 내면에는 잠재적인 긴장의 가능성이 내재하여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오늘날 무시되고 있는 농촌 내부의 다양성과 내재한 암묵지들은 향후 농촌 전반에 깔린 선입견과 제약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으나, 계속 무시되면 오히려 농촌의 갈등요인이 되거나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 있다.

앞에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농촌 공간의 각 축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일관성 정도는 농촌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Halfacree, 1996). 할파크리의 세 단계 분류 기준에 따르면 오늘날의 캄보디아 (트봉크뭉) 농촌은 잠재적인 갈등과 긴장이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 ‘모순과 분열(contradictory and disjointed)’의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오늘날 대다수의 농촌이 속해있는 단계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주의와 분절화가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 오늘날의 일반적 농촌과는 다르게, 캄보디아의 경우 1970년대 말 비극의 시기 이래 근본적인 모순으로 지역의 구성요소 간 일관성을 완전히 상실한 ‘혼란과 비일관성(chaotic and incoherent)’의 수준에서 역으로 개선된 사례라는 차이가 있다. 즉 캄보디아 농촌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캄보디아 연구자들은 캄보디아 농촌이 파괴된 공동체 요소의 회복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왔으며, 이미 상당 부분 회복이 된 상태라 자신했다(Krishnamurthy, 1999; Kim, 2001; Pellini, 2005; Grahn, 2006).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현지조사를 통해 부분적으로 드러났으나, 오늘날 농촌 공동체가 여전히 분절되어 있으며 개인적 네트워크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자본주의 시스템에 편입시킬 경우, 개발도상국 농

촌을 지탱하던 공유경제와 자급자족의 시스템은 파괴되었으나 소득의 상승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소득이 올랐음에도 오히려 상대적 빈곤감이 더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향후 시간이 더 지나 캄보디아 농촌이 명목상이 아닌 진정한 캄보디아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모든 측면이 조화롭고 일관성 있게 작용하는 ‘일치와 통합(congruent and unified)’의 단계로 올라설 수 있어야 한다. 이 단계는 모든 측면이 같은 내용을 강조하는 상황이 아닌, 각각의 구성요소가 마찰과 갈등 없이 어울리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의 농촌에 대한 접근은 농촌을 표면적이고 부분적이면서도 편향적으로 다루고 있어, 농촌이 처한 현황을 심도 있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농촌개발 활동의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농촌에 작용하는 힘들이 갈등 없이 어울려 지역의 활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힘이 무엇이며 어떠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트봉크뎀 및 캄보디아 전체 농촌에서는 이 접근에 대해 고려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진정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에 대한 성급한 일반화가 아닌 지역의 내면과 주민의 삶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이 연구의 한계와 제언

본 연구가 캄보디아 트봉크뎀 농촌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와 분석방법을 동원했으나, 그런데도 다음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해 한계가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다. 우선, ‘연구자의 한계’가 있다. 캄보디아와 농촌에 대해 연구자의 심층적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농촌을 대함에 있어 연구자의 상상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오늘날 개발도상국 농촌에 대한 논의가 국가와 해외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그 대안과 보완책으로서 소수의견은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둘째, ‘연구 자료의 한계’를 들 수 있다. 현재 신생 주인 트봉크뎀을 대상으로 진행된 지역조사는 매우 희박하다. 기존에 진행됐던 조사들 역시 세부 지역 및 주제별로는 다루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조사된 결과 역시 질문의 방법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 조사기관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사에 따라 소득, 민족 등에 대한 정의에 따라 조사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마지막 제약 요인인 ‘연구 방법의 한계’ 를 들 수 있다. 부족한 정보의 보완을 위해 주변 지역 및 상위지역과 연계하여 해석하려 했으나, 오히려 트봉크뭉 자체에 관한 관심이 부족했거나 잘못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제약으로 인해 다음 제언의 필요성을 느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제안으로, 개개인이 지닌 편향된 선입관 극복을 위한 ‘올바른 지역 교육’ 이 필요하다. 이는 근래 들어 매우 주목받고 있는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의 가장 본질적인 목표이며, 이 교육을 위해 지리학이 맡아야 할 역할이 크다. 두 번째 가장 본질적인 제안으로 ‘지역에 기반을 두는 접근’ 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각각의 지역에 대한 정밀하고 정확한 조사만이 아닌, 지역이 함유하는 사회, 경제, 환경, 문화, 역사 등 다양한 배경을 두루 아우르면서도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자국이 아닌 외국, 그중에서도 정보가 제한적인 개발도상국에서 진행되는 활동의 경우 지역 전반에 복잡하게 얽힌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해외(특히 개발도상국) 지역조사가 활동의 목적에 맞게 경제, 경영, 환경 등 제한된 측면에 집중하여 지역을 다루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지역개발, 주민 삶의 질 개선, 경제성장 등 국제사회의 상생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분야의 경우, 사업의 학제적 성격, 지역 조사의 필요성, 사업이 지역에 미친 영향력 측정 등 다양한 요소에서 지리학의 참여 여지가 높으나, 국내의 경우 해당분야에 대한 논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무시되어온 지역에 대한 연구’ 의 필요성’ 을 강조한다. 그것이 지리학이 가치를 인정받고 제 역량을 발휘하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16, 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Kingdom of Cambodia), 관계부처 합동.
- 김권호·권상철, 2016, 공동체 기반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제주해녀의 공유자원 관리 사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1): 49-63
- 김권호·정운관, 2017, 개발도상국 농촌개발의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모델 구축: 캄보디아 농촌 마을의 현지 조사와 지역기업네트워크 지원 가능성 사례, 『제14회 국제개발협력 논문공모 수상 논문집: 한국국제개발협력의 미래』, 한국국제협력단 ODA교육원.
- 김다원·한현수, 2012, 사실과 재현의 관점에서 아프리카 다시보기: 초·중학교 사회 교과서 아프리카 서술 내용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7(3):440-458.
- 노화준·노시평·김태일, 1996, 정부출연 연구기관 종합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평가요소의 개발과 가중치 설정, 『한국정책학회보』, 5(1): 30-54.
- 변규환·송양훈, 2016, AHP를 이용한 KOICA 농업 분야 원조사업의 평가, 『농업경영·정책 연구』, 43(4): 781-812.
- 이재은, 2007, AHP 기법의 소개와 사례 적용: 논리 일관성과 분석계층을 통해 본 유용성과 한계,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07권0호:1-23.
- 정미경, 2014, 한국 학계의 캄보디아·라오스 연구: 현황과 쟁점. 『아시아리뷰』, 4(1), 95-136.
- 정운관, 2018, 캄보디아 지역공동체의 사회자본 측정: 트빙크럼 주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병두, 2014, 한국의 신지역지리학,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4): 357-378
- 최병두, 2018, 르페브르의 일상생활 비판과 도시·공간적 소외, 『대한지리학회지』, 53(2): 149-172.
-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15a, *Base Line Survey Report*,

- Self-Supporting Rural Development Project with SMU's Participatory Approach in Kampong Speu, Takeo and Tbong Khmum Province, CAMBODIA, KOICA.
-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15b, Cambodia Self-Supporting Rural Development Project with SMU's Participatory Approach' Master Plan, KOICA.
-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16, 캄보디아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시행계획서 (Action plan), KOICA.
- 한주성, 2018, 지역관련 학문의 맥락적 이해와 관계론적 접근방법, 『한국지역 지리학회지』, 24(1):32-50.
- Asian Development Bank, 2012, *Rural Development for Cambodia: Key Issues and Constraints*, Mandaluyong City, Philippines: Asian Development Bank (ADB).
- Bredenberg, K., and Sovann, S., 2003. Cambodia Secondary Education Study: Educational Demand in the Basic Education Sector and Strategies for Enhancement, KAPE.
- Cambodia Research Network(CRN), 2007 *The Peoples of Cambodia*, 2nd edition. Phnom Phen: CRN.
- Christiaensen, L., and Lionel, D. E., 2007, *Down to Earth: Agriculture and Poverty Reduction in Africa*, World Bank.
- Colletta, N. J., and Cullen, M. L., 2000, The Nexus Between Violent Conflict, Social Capital and Social Cohesion: Case Studies from Cambodia and Rwanda, *Social Capital Initiative Working Paper No. 23*, World Bank, Social Development Family, Environmentally and Socially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
- Dararath, Y., Top, N., and Lic, V., 2011, *Rubber Plantation Development in Cambodia: At What Cost*, The Economy and Environment Program for Southeast Asia.
- Ebihara, M., 1973, Intervillage, Intertown, and Village-city relations in

- Cambodia,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220(1), 358–375.
- Ebihara, M., Mortland, C., and Ledgerwood, J., 1994, *Cambodian culture since 1975: Homeland and exile*,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ESCUP, 2006, Language Proficiency Survey Results among Minority Children in Selected Areas (Unpublished), Phnom Penh: World Education–KAPE.
- ESCUP, 2008, Assessing Materialization of Cham Muslim Communities in Cambodia, Washington, D.C.: American Institutes for Research.
- Cloke, P., 1989, Rural Geography and political economy, in Peet, R. and Thrift, N.(eds), *New Models in Geography: The Political Economy Perspective*, vol. 1. London: Unwin Hyman.
- Cloke, P., 2006, Conceptualizing rurality, in Cloke, P., Marsden, T., and Mooney, P.(eds), *Handbook of Rural Studies*, London: Sage.
- Grahn, H., 2006, In the Search of Trust—A Study on the Origin of Social Capital in Cambodia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Lund University.
- Halfacree, K., 1993, Locality and social representation: space, discourse and alternative definitions of the rural, *Journal of Rural Studies*, 9: 1–15.
- Halfacree, K., 1996, Rural Space: Constructing a Three-fold Architecture, in Cloke, P., Marsden, T., and Mooney, P.(eds), *Handbook of Rural Studies*, London: Sage.
- Hoggart, K., 1990, Let' s do away with rural, *Journal of rural studies*, 6: 245–57.
- Hubbard, P., 2006, *City*, London: Routledge.
- Inada, J., 2013, Analysis of the Survey on Social Capital in Cambodia, *The Senshu Social Capital Review*, 4, 160:189
- Kim, S., 2001, Reciprocity: informal patterns of social interactions in a

- Cambodian village near Angkor Park, Illinois University.
- Kingdom of Cambodia, 2013, “*Rectangular Strategy*” for Growth, *Employment, Equity and Efficiency, Phase III*, Phnom Penh: Kingdom of Cambodia.
- Kingdom of Cambodia, 2014, *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14–2018*, Phnom Penh: Kingdom of Cambodia.
- Krishnamurthy, V., 1999, The Impact of Armed Conflict on Social Capital: A Study of Two Villages in Cambodia, Social Services of Cambodia.
- Lefebvre, H.,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Oxford: Blackwell.(『공간의 생산』, 양영란 옮김, 에코리브르, 2011)
- Maunati, Y., and Sari, B. R., 2014, Construction of Cham Identity in Cambodia, *SUVANNABHUMI*, 6(1), 107–135.
- Massey, D., 1994, *Space, Place and Gender*, Cambridge: Polity Press.
- Mies, M., Veronika B.T., 2000, *Subsistence Perspective: Beyond the Global Economy*, London: Zed Books.(『자급의 삶은 가능한가』, 꿈지모 옮김, 동연, 2013)
- Ministry of Planning(Cambodia), 2013, *Annual Progress Report–Achiev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Phnom Penh: MOP.
- Ministry of Labour and Vocational Training, 2014, *Policy on Labour Migration for Cambodia*, Phnom Penh: MLVT.
- Mormont, M., 1990, Who is Rural? Or, How to Be Rural: Towards a Sociology of the Rural, in Marsden, T., Lowe, P., and Whatmore, S.(eds), *Rural Restructuring: Global Processes and their Responses*, London: Routledge.
-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2014, *Cambodia Socio–Economic Survey 2013*. Ministry of Planning, Phnom Penh: NIS.
- Ojendal, J., Sedara, K., 2006, Korob, Kaud, Klach: In Search of Agency in

- Rural Cambodia,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37(3): 507-526.
- Ovensesen, J., Trankell, I., Ojendal, J., 1996, *When Every Household is an Island, Social Organization and Power Structures in Rural Cambodia*, Uppsala research reports in cultural anthropology, No 15.
- Pellini, A., 2005, Traditional Forms of Social Capital in Cambodia and Their Linkage with Local Development Process, *Cambodia Development Review*, 9(3).
- Pen, R., and Chea, P., 2015, *Large-scale land Grabbing in Cambodia: Failure of International and National Policies to Secure the Indigenous Peoples' Rights to Access Land and Resources*, Phnom Penh: Heinrich Boll Foundation.
- Philo, C., 1992, Neglected rural geographies: a review, *Journal of Rural Studies*, 8: 193-207.
- Satty, T.L., 1980,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New York: McGraw-Hill.
- Satty, T.L., 1990, How to make a decision: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48: 9-26.
- Sharp, B., 2005, Counting Hell: The Death Toll of the Khmer Rouge Regime in Cambodia, *Beauty and Darkness: Cambodia in Modern History*.
- Shields, R., 1999, *Lefebvre, Love and Struggle. Spatial Dialectics*, London: Routledge.
- Tully, J., 2006, *A short history of Cambodia: From empire to survival*, Crow Nest: Allen & Unwin.
- Tong, K., Lun, P., and Sry, B., 2013, Levels and Sources of Household Income in Rural Cambodia 2012, *Working Paper 83*, Cambodia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2011, *USAID country Profile: Property Rights and Resource Governance: Cambodia*,

- Washington D.C.: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 Vicheth, S., 2012, Social Capital in an Urban and a Rural Community in Cambodia, *Cambodia Development Review*. 16(2).
- Woods. M., 2009, Rural Geography, in Kitchin, R. and Thrift, N.(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Human Geography*, vol. 9, Oxford: Elsevier.
- Woods. M., 2011, *Rural: Key Ideas in Geography*, London: Routledge (『농촌: 지리학의 눈으로 보는 농촌의 삶, 장소 그리고 지속가능성』, 박경철 외 옮김, 따비, 2016)
- World Bank, 2008, *World Development Report 2008, Agricultural for Development*, The World Bank.

[기사 자료]

- 정문태, 2002.11.21., 킬링필드, 20세기 최대의 거짓말, 한겨레21 제435호, <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069000/2002/11/021069000200211210435055.html>.
- Banyan, 2018.05.22., Hun Sen, Cambodia' s ruler, has been in power too long, The Economist, <https://www.economist.com/news/asia/21739170-after-33-years-top-he-just-getting-started-hun-sen-cambodias-ruler-has-been-power>.
- Bopha, P., and Willemys, A., 2014.1.10., Government Creates New CPP-Majority Province, The Cambodia Daily, <https://www.cambodiadaily.com/news/government-creates-new-cpp-majority-province-50391/>
- Human Rights Watch, 2013.1.31., Cambodia: Ruling Party Orchestrated Vote Fraud, <https://www.hrw.org/news/2013/07/31/cambodia-ruling-party-orchestrated-vote-fraud>
- Hutt, D., 2017.05.19., The Fall of Cambodia' s Patron-Client Politics?,

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17/05/the-fall-of-cambodias-patron-client-politics/>.

[웹 사이트]

Cambodian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Board 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http://www.cdc-crdb.gov.kh/>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STAT, <http://www.fao.org/faostat/>

Ministry of Rural Development(Cambodia), <http://www.mrd.gov.kh/>

Muslim Aid, <http://muslimaidcambodia.org>

World Bank, Cambodia Overview,

<http://www.worldbank.org/en/country/cambodia/overview>

World Bank, Understanding Poverty-FAQs: Global Poverty Line Update,

<http://www.worldbank.org/en/topic/poverty/brief/global-poverty-line-faq>

World Bank, World Bank Open Data, <http://data.worldbank.org/>

부록

1. AHP분석 설문지

* 아래의 설문지는 영문판으로 실제 조사에서는 현지어로 번역되어 활용되었음.

[Basic Information]

1. What is your name?

2. What is your gender?

① Male ② Female

3. What age group do you belong to?

①	②	③	④	⑤
20s	30s	40s	50s	60s

4. What is your occupation?

① farmer ② owner-operator ③ public servant ④ wage earner ⑤ Housewife ⑥ others

5. How much is your household's monthly income?

①	②	③	④	⑤
Below 100\$	100 ~ 200\$	200 ~ 300\$	300 ~ 400\$	Over 400\$

6. What level of education did you complete to?

①	②	③	④	⑤
none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Beyond university

[Project Category and description]

- ◆ Please refer to the table below in order to answer the question in next pages.

Category	Sub-category	Description
Income generation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vity	Small irrigation(canal construction, pond construction), Reservoir construction, Agro-material supply(seed, fertilizer, pesticide) etc.
	Micro-credit	loan small money with small interest
	Livestock Bank	Cow bank, pig bank, chicken bank, duck bank, etc.
	Product development and Marketing	Development new crops and goods, promotion of new market, advertisement, etc.
	Technical training	Training on moto repair, hand-made product, agricultural skill, etc.
Living environment	Family living facilities	Improvement of kitchens and toilets, repairing house building, etc.
	Education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of kindergarten, elementary school, and more.
	Villag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or repair of road, village hall, pagoda, etc.
	Health and Sanitation	Supply clean water and establishment of health center
Spiritual enlightenment and capacity building	Development of villager's mindset	Education to foster villager's mindset such as diligence, self-help, cooperation, etc.
	Formation of villager groups and organization	Formation of Women group, Co-operative, Village credit committee, etc.
	Training on management of projects and organizations	Training on village meeting, leadership, accounting and management of village projects and organizations

[Survey]

◆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which project is more necessary for developing your village'? Please check the level you prefer.

1.

Income generation		Living environment
Income generation		Spiritual enlightenment & capacity building
Living environment		Spiritual enlightenment & capacity building

2.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vity		Micro-credit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vity		livestock Bank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vity		Product development and Marketing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vity		Technical training
Micro-credit		livestock Bank
Micro-credit		Product development and Marketing
Micro-credit		Technical training
livestock Bank		Product development and Marketing

livestock Bank		Technical training
Product development and Marketing		Technical training

3.

Family living facilities		Education infrastructure
Family living facilities		Village infrastructure
Family living facilities		Health and Sanitation
Education infrastructure		Village infrastructure
Education infrastructure		Health and Sanitation
Village infrastructure		Health and Sanitation

4.

Development of villager's mindset		Formation of villager groups and organization
Development of villager's mindset		Training on management of projects and organizations
Formation of villager groups and organization		Training on management of projects and organizations

- This survey will be used to develop village projects.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2. 캄보디아 주요 국가지표

[캄보디아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단위	2011	2012	2013	2014	2015e	2016f
국내경제	GDP	억달러	129	141	154	137	180	198
	1인당 GDP	달러	883	947	1,025	1,096	1,144	..
	경제성장률	%	7.1	7.3	7.4	7.1	7.0	7.0
	국내총투자/GDP	%	22.0	23.5	23.5	23.2	22.5	22.7
	실업률	%
	재정수지/GDP	%	-7.6	-6.8	-7.1	-1.4	-1.2	-0.9
	소비자물가상승률	%	5.5	2.9	3.0	3.9	1.2	3.1
대외거래	환율(달러당, 연중)	CR	4.059	4.033	4.027	4.038	4.068	4.064
	경상수지	백만달러	-475	-1,038	-1,607	-1,657	-1,693	-1,521
	상품수지	백만달러	-1,903	-2,456	-2,958	-3,224	-3,456	-3,535
	수출	백만달러	5,035	5,633	6,530	7,445	8,453	8,749
	수입	백만달러	6,937	8,089	9,489	10,669	11,920	12,262
	서비스수지	백만달러	1,416	1,657	1,729	1,930	2,181	2,548
	FDI 순유입	백만달러	789	1,411	1,354
	유입	백만달러	815	1,447	1,396
	유출	백만달러	29	36	42
	외환보유액	백만달러	3,032	3,463	3,642	4,391	5,108	5,273
외채현황	정부부채/GDP	%	30.3	32.1	33.3	33.5	32.7	..
	국내정부부채/GDP	%	0.6	0.5	0.5	0.4	0.4	..
	해외정부부채/GDP	%	29.7	31.6	32.8	33.1	32.3	..
	순외채잔액	백만달러	4,446	5,717	6,472	6,811	7,483	8,474
	총외채잔액/GDP	%	34.4	40.0	24.5	40.6	40.1	39.7
	단기외채	백만달러	447	1,178	1,326	1,301
	외채상환액/총수출	%	1.1	0.9	1.0	1.1	1.1	1.3

자료: 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관계부처합동, 2016)

[캄보디아 주요 인프라지표]

지표	순위(총 114개 국)	지표 값
전반적 인프라	95	3.4
도로 인프라	93	3.4
철도 인프라	98	1.6
항만 인프라	76	3.9
항공수송 인프라	99	3.9
이용 가능한 항공	81	106.7
전력 공급	106	3.3
100명 당 휴대전화 가입자	35	133.0
100당 유선전화	116	1.3

자료: 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관계부처합동, 2016)

이용 가능한 항공과 100명 당 휴대폰 가입자 및 유선전화 항목을 제외한 지표 값은 7점 만점임.

[캄보디아 주요 사회지표]

항목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간개발지수	-	0.536	0.536	0.541	0.546	0.550	0.555	-
국가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	-	22.1	20.5	17.7	-	-	-
1인당 GNI(달러)	300	460	750	810	880	960	1,020	1,070
초등학교 등록률	92	-	123.4	121.7	121.4	123.0	124.5	-
초등학교 수료율	-	86	84.9	87.2	92.9	93.9	96.3	-
중학교 등록률	17	-	-	-	-	-	45.0	-
중학교 수료율	-	34.2	50.2	48.3	48.0	48.0	-	-
모성사망률(10만 명 당)	440	472	210	-	-	-	-	-
영유아사망률(5세미만, 1,000명 당)	111	64	43.1	39.3	35.8	32.9	30.6	28.7
HIV/AIDS 발병률(15-49세)	1.6	1.2	0.8	0.8	0.7	0.7	0.7	0.6
결핵 발병률(10만 명 당)	575	511	436	423	411	400	-	-
기대수명	62	65.2	66.4	66.9	67.3	67.8	68.2	-

홍역 예방접종 비율(12-23개월)	65	79	93	93	93	90	-	-
향상된 위생시설 접근가능 인구 비율	16.3	24.7	33.6	35.4	37.2	39.0	40.8	42.4
초중등학교 남학생대비 여학생 등록비율	87.5	93.0	95.6	94.8	95.1	93.0		
성불평등지수(GII)	-	0.551	-	0.494	-	0.505		
남성대비 여성의 노동참여율	-	0.887	0.915	0.913	0.912	-		

자료: 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관계부처합동, 2016)

<Abstract>

Redefining the Rural in the Developing World

: A Study on Totality of Space in Tbong Khmum Province, Cambodia
from the Perspective of Rural Geography

Kwonho KIM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 Sangcheol KWON

Poverty, shortage, ignorance, incompetence, conformity, these negative words are the public imagination of the rural area in the developing world. Particularly in Cambodia, 90% of the poor live in rural area. The national government and other overseas organizations keep offering aids with their sympathy, even though no rural people has been starving and asking for help. Visitors are often surprised at the vitality of the rural area different from the popular images. There is discrepancy between the *representations* which has been taken to the public and the *factual contents* the locales make living in practice. In order to overcome this dualistic recognition, this paper examines various backgrounds and aspects of Tbong Khmum and other rural areas in Cambodia. The rural and rurality has been understood as peripheral from the functional linkages with city, market, and global society. On the other hand, the rural as a region has its own history, culture, society and others to be dealt with a livable geographic entity. This paper attempts to disclose the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rural area in itself and a way to

approach them keeping the balance between representation and reality. The three-fold model of rural space by rural geographer Halfacree forms the conceptual framework, the totality of rural space integrating 3 facets of *formal representations of the rural*, *rural localities*, and *everyday lives of the rural*. Based on a year-long participatory observation with geographic perspective, data and information had been gathered across the research area through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urveys. The outsiders' imageries on the rural area as well as Cambodia overall may commonly connect to negative notions such as poverty, shortage, vulnerability, incompetence. These imageries unavoidably affect the government and people in the developing world since the rural area in the developing world is mainly framed by the developed world. The effects even further extend into the people and institutions in the developing world.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has emphasized the vulnerability of rural area, demonstrated its will to develop the rural sector, and finally requested aids from the overseas organizations who constructed the imageries in the beginning. This formal representation is caused by poor (capitalist) infrastructure in most rural area, and then this (capitalist) locality formally reemphasizes the needs of rural development. In this circular process, the lives of rural are regarded as dependent and passive entities to take development along with outside pressures.

The rural area, however, intrinsically retains diversity, incoherence, and tension which are not accord with the single generalization. It is hardly possible to recognize that Tbong Khmum is a place for the minority ethnic Cham and the underlying political tensions. Foremost, cultural diversity and tacit knowledge accumulated through their survival and adaptation in the rural area are strong enough to sustain their ways

of living and to confront with the popular negative images. But the popular images are representations not taking into account the intrinsically segmented and incoherent entities of the rural and those of Cambodia more specifically with historic rampages. The rural is not simply the other; each of the rural takes different reaction and creates different outcome depending on its own value, competency, and recognition. The tragedy of violent and turbulent, so-called the Killing Field (1975–1979), has decisive effects. It had alienated and denied those who fail to meet the expectations. But it was not that remarkable as Cambodian culture of carefulness used to conceal its internal conflicts and tensions.

Tbong Khmum study reveals new understandings of the rural in the developing world. Each of the formal representations, rural localities, and everyday lives of the rural has incongruent facet which has not and cannot be easily captured in outsiders' imagination. Also, each of the three facets cannot be understood in isolation from the other two. Each forms an element of the three-part dialectic and thus putting the rural in constant dynamic from the changes in either facet. Studies on the rural and rurality taking superficial and partial approach would have limitations in disclosing the intricate incongruity and interconnectedness. It is important qualities to understand the rural as well as to have effective and efficient rural development. It is time to move beyond the hasty generalization on the rural area and to increase the alienated and complicate inner rural geographic knowledge.

Key words: Tbong Khmum province, Cambodia, three-fold model of rural space, formal representations of the rural, rural localities, lives of the rural, totality of rural space

<감사의 글>

“សាកល្បងហើយព្យាយាមម្តងទៀត”

“Try and try once again.”

파견 초기에는 말 한마디 안 통하던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홀로 둘러싸여 ‘내가 어찌다가 뭐하자고 여기까지 왔을까?’ 하고 멍 때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모든 일은 친구 창현이네 할머니 김옥생 여사님을 무턱대고 찾아가서 청한 인터뷰에서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전해주시는 제주해녀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는 지역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을 바꾼 놀랍고도 감사한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이후 지역에 잠재된 가치와 가능성을 찾아보려 노력했고, 그러다보니 평생 갈 일 없을법한 곳도 가보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이끌어주신 제 평생의 롤모델 권상철 교수님께 한 치의 아쉬움 없는 만족과 보람만이 가득한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설피지만 저를 ‘지리하는 사람’으로 이끌어주신 손명철, 김태호, 오상학, 최광용 교수님께 철없는 제자가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존경을 고백합니다. 지난 10년간 지리학도로서 많은 동료에게 배우고 또 도움 받아왔습니다. 늘 언제나 믿고 기대는 선배님들 (그리고 형님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지리를 실천하는 친구들이 함께했습니다. 저는 모두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저마다의 현장에서 제 역량과 진가를 발휘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하나가 꿈 많은 후배님들을 위한 이정표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연구는 1년간 캄보디아 생활의 버팀목이 되어준 자랑스러운 글로벌새마을청년전문봉사단 3명의 형제들이 함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훗날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도전과 시도 속에 다시 얽혀 함께 도약할 기회가 올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제가 뭐하고 사는지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채 한 결같이 응원만하는 부모님과 진서에게도 정말로 고맙고 또 미안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일인가 봅니다. 또 해외에 있다고 빈소도 지키지 못한 부덕한 손자를 용서하세요. 보고 싶습니다. 다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អរគុណប្រសើរ**

2018년 6월

김 권 호